

내 양을 먹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함으로라 (요한복음 15:16-17)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24)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15-16)

자격 있는 제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33-35)

기쁜 자원봉사자 - 항상 첫사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제자: 믿음으로, 보는 눈으로, 듣는 귀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기쁨으로 순종하는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으로 만들며
휴거를 준비하는
아침 이슬의 제자들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그들이 승리하도록.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 (이사야 62:10)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3)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14-
16)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으로

아침 이슬 수업 노트



**“내 어린양을
먹이라”**

노트 1-36



“내 양을 치라”

노트 37-65



“내 양을 먹이라”

노트 66-98



이슬노트점검

노트 90-126



“나를 따르라”

노트 1-420

리더들의 세미한

음성 노트 목상

조희도 화백 - 예수그리스도

Contents

66 히스토맵	15
66.1 이스라엘에서 본 세계적 관점	15
66.2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	15
66.2.1 출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15
66.2.2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16
66.3 지구 프로젝트	17
66.4 성전	18
66.5 유대인의 제삼성전 갈망 (에스겔 40-48)	26
66.6 새 예루살렘	28
67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31
67.1 거짓 선지자의 역사	31
67.2 지금 지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질문들:	32
67.3 참된 예언자:	33
67.4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인가?	34
67.5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35
67.6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	38
67.7 어리석은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39
67.8 주의 명에 없이 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39
67.9 심판의 날과 어리석은 예언자를 분별하라	40
67.10 거짓 선지자들의 무정함	40
67.11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43
67.12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적인 속임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기록되어 있다	44

67.13 교회에 열려 있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45
67.14 교회	46
68 특별한 부름	48
68.1 부르심	48
68.2 제자	48
69 박해 속에서의 기쁨	55
69.1 베드로	55
69.2 스테반	57
69.3 그리스도 제자 자격 3 가지	58
69.4 제자의 자질	59
69.5 육신은 아무 유익이 없다	60
70 시험과 통과	66
70.1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험	66
70.2 예수와 광야 시험	68
70.3 제자의 특권	69
70.4 여호와의 말씀	70
70.5 나의 제자들아, 들으라	72
70.6 목적 달성	73
70.7 순교자	74
71 믿음과 순종	80
71.1 주를 항상 앞에 두고, 그와 동행하라	80
71.2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	81
71.3 '정상'적인 삶	82
71.4 정상작의 표지	82

71.5 신뢰할 만한 자가 되라	83
71.6 남편과 아내	84
71.7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라	85
71.8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거부	86
71.9 에베소서 1 장	87
71.10 에베소서 2 장	89
71.11 시편 110 장	91
71.12 룻의 삶, 이슬로 인정받다	92
72 이슬의 생활 방식	95
72.1 이슬의 규칙과 매일의 말씀	95
72.2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96
72.3 올바른 선교 방법을 보여줌	96
72.4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라	97
72.5 순종이 가져오는 평화와 기쁨	98
72.6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101
73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102
73.1 회생	102
73.2 신실함	104
73.3 약한 자를 받아들임	105
73.4 충성	107
73.5 명예	109
73.6 온전함	110
73.7 겸손	112
73.8 서로와 조화	113
73.9 용기	115

73.10 절제	117
73.11 장로 존경	117
73.12 인내	118
73.13 완전함	119
74 태도	120
74.1 항상 기뻐하라	120
74.2 모든 일에 감사하라	123
74.3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선물이다	129
75 연습	132
75.1 혀 길들이기	132
75.2 거룩함	133
75.3 우상에서 떠나라	134
75.4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세례 받음	136
75.5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것 같이	137
75.6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	138
75.7 순수함	140
75.8 죄와 죄들	142
76 빛 - "SOLUM GLORIA"	146
76.1 아가페	146
76.2 위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은 영원하다	148
77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연습하라	154
77.1 스바냐 3 장	154
77.2 고린도전서 13 장	156
77.3 요한복음 5 장	158

77.4 갈라디아서 3 장	163
77.5 요한일서 3 장	166
77.6 요한일서 4 장	168
77.7 로마서 13 장	170
77.8 기타 실천 사항	171
78.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라	175
78.1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175
78.2 이와 같이 구하라	175
78.3 입술의 열매	184
78.4 단순함	186
79 믿음은	193
79.1 자신을 살피고 믿음 안에 서라	194
79.2 믿음의 기초 질문	194
79.3 맹인 바디매오에게서 믿음을 배우라	196
79.4 믿음의 역사	197
80 믿음의 증명	204
80.1 시련을 통해	204
80.2 걱정하지 말라	205
80.3 백부장	206
80.4 고넬료	208
80.5 믿음의 실천, 예	208
81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	213
81.1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을 위한 일	213
81.2 부활	214
81.3 우리는 정복자 이상임	214

81.4 나의 정체성과 자질을 증명하라	215
81.5 지혜와 함께 걷기	216
81.6 세상이 아닌 곳에서	218
81.7 신중함	219
82 성령과 함께 걷기 (노트 26.14 review)	220
82.1 노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221
82.2 가르침 안에 계속하라	221
82.3 위로부터 오는 능력	222
82.4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223
82.5 사랑은	223
83 헌신	225
83.1 헌신이란 무엇인가	225
83.2 왜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는가?	226
83.3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가?	227
83.4 헌신의 질	229
83.5 헌신의 종류	230
83.6 잘못된 헌신	232
84 해야 할 일: 기도	233
85 기도의 예시와 교훈	241
85.1 히스기야의 기도	241
85.2 히스기야를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인가?	243
85.3 바디매오, 맹인으로부터 배워라	244
85.4 금식과 기도	245
85.5 나의 기도를 점검하라	247
86 매일의 선택과 지침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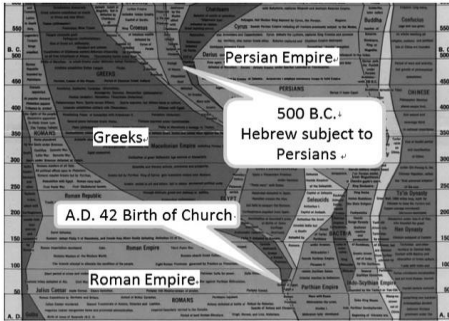
86.1 나의 길 인도: 율법과 예언	254
86.2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교제, 정상적인 신앙	257
86.3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방향 설정	257
87 왜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260
87.1 네가 사는 때를 분별하라	260
87.2 지금은 어떤 때인가?	261
87.3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라.....	261
87.4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262
87.5 네 기초를 점검하라.....	262
87.6 잠언 31 장의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일했는지 기억하라.....	263
87.7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에 따라 일하라	264
87.8 하나님의 말씀위에 네 일을 세우라, 감정이나 의지나 계획에 세우지 말라.....	266
87.9 깨어서 시기를 분별하라	268
87.10 구하고 두드리라.....	270
87.11 예언이란.....	270
88 축복 또는 저주	273
88.1 받아들여짐	273
88.2 저주받음	277
88.3 정복하고 누림: 증거	281
88.4 풍성한 생활 / 잠언 31 장	283
89 정복하고 책임지기: 계명	286
89.1 승리와 성공.....	286
89.2 내면의 전쟁.....	286

89.3 세상 속의 전투	291
89.4 패배	293
89.5 응답되지 않는 기도.....	293
89.6 피 묻은 손	294
89.7 안식일을 존중하지 않음	294
90 지상의 주님 나라	296
90.1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296
90.2 전도	300
91 선교	313
91.1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	315
91.2 선교사	316
91.3 죄 많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316
91.4 MMCC(Multipurpose Micro Community Center)와 선교 도우미	321
91.5 그들이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으리라.....	322
91.6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께 구하라	325
91.7 믿는 자들의 기도	325
91.8 믿는 자들이 소유를 나누다	326
92 마음을 향하여: 교훈	328
92.1 시편 139 편: 주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328
92.2 축복의 문, 올바른 길, 선택: 잠언 3 장	330
92.4 악과 원수를 분별하라	335
93 올바른 예배, 새롭게 되다, 회복과 축복을 받다 ...	337
93.1 두 갈래의 길.....	337
93.2 하나님의 은총을 받다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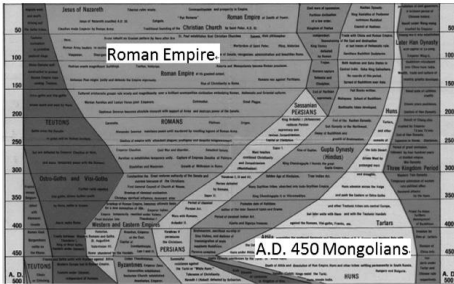
93.3	정해진 절기	338
93.4	출애굽기 23	344
93.5	민수기 28.....	346
94	안식일	349
94.1	안식일의 이유	349
94.2	안식일은 거룩하다.....	350
94.3	정한 절기	350
94.4	잘못된 예배	351
94.5	예배의 규정.....	351
94.6	마음의 성전.....	352
94.7	순수함을 지켜라	352
95	제단.....	357
95.1	흙으로 만든 제단	357
95.2	기도의 제단.....	357
95.3	노아.....	358
95.4	이삭.....	358
95.5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359
95.6	제사장	360
95.7	받으실 만한 헌물	363
96	예배 캠프	366
96.1	예배자의 성품과 태도.....	366
96.2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심	367
96.3	기도와 성결로 준비된 장소	368
96.4	찬양을 통한 예배의 능력	368
96.4.1	준비된 찬양.....	368

96.4.2 예배에 일곱 나팔 사용	369
96.5 예물에 대한 축복과 기도	370
96.6 하나님의 말씀 선포.....	370
96.7 수련회 일정.....	373
97 헌신의 제사는 하나님을 존경함이다.....	375
97.1 예배하기	375
97.2 예물의 원칙을 알라.....	375
97.3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과 감사로 드리는 제물	376
97.4 번제 (수컷).....	376
97.5 소제 (지극히 거룩함)	378
97.6 화목제 (수컷 또는 암컷)	378
97.7 속죄제 (수컷)	380
97.8 속건제 (암컷)	383
97.9 보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 (숫양)	385
97.10 번제	385
97.11 소제	386
97.12 만지는 자는 모두 거룩해야 한다	386
98 보통의 그리스도 제자.....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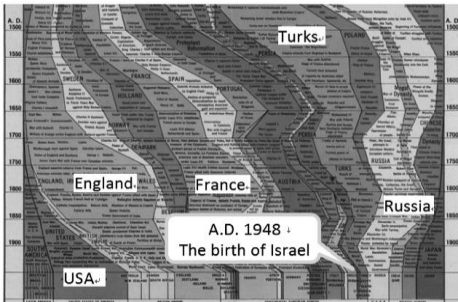
66.2.2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교회의 탄생과 복음 확장



이스라엘의 회복 1948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야 43:13)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5:7)

66.3 지구 프로젝트

기록된 바:

아담과 이브 - 에덴동산 - 죄 없는 세상

아담의 불순종 - 죄가 지배 - 잃어버린 에덴

물로 심판 - 모두 죽음 - 노아의 방주

바벨탑 - 끝내지 못함 - 흩어짐 (시간낭비)

소돔과 고모라 - 불로 심판을 당함

아브라함언약 - 믿음과 의지

모세와 율법 - 율법언약

성전법 - 제사장 나라 - 법외언약

다윗언약

솔로몬과 분열된 왕국

선지자와 메시아 약속

성전파괴 - 파괴된 왕국

잃어버린 법외

다니엘의 70 주 1335 일 etc 계시

약속한 메시아 - 교회를 그의 피로 사심

이스라엘의 2000 년 방황시작

약속한 성령 - 교회의 시작 - 마가다락방 교회

이스라엘회복 (1948)

가짜평화

교회의 휴거(?)

7 년 환난시작

제삼성전 - 매일 제사시작(에스겔)

144000 첫열매와 세계선교

적그리스도와 제사폐지

666 마크 아니면 죽음

제 2 휴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스라엘의 통회와 회복

재림

1000 년 왕국과 제사장 나라

새하늘과 새 땅

66.4 성전

66.4.1 하늘의 성전

기록된 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1:19)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1:9-14)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시는 실제로 존재하며,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아는가?

66.4.2 제삼 성전: 에스겔 40-48

[] 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성전을 설계하셨나?

[] 은혜의 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은혜의 시기는 언제 끝나는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한국어	영어	히브리어 발음	유대력	2022년
유월절(逾越節)	Feast of Passover	페사흐	1월 14일 저녁	4월 15일
무교절(無酵節)	Feast of Unleavened Bread	하그 하마조트	1월 15~21일	4월 16일
초실절(初實節)	Feast of Firstfruits	욤 하비쿠림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4월 17일
칠칠절(七七節)	Feast of Weeks	샤부옷	초실절로부터 7주 뒤 50일째(맥추절 · 오순절)	6월 5일
나팔절(號吹節)	Feast of Trumpets	로쉬 하샤나	7월 1일	9월 26일
속죄일(贖罪日)	Day of Atonement	욤 키푸르	7월 10일	10월 5일
초막절(草幕節)	Feast of Tabernacles	수컷	7월 15~21일(장막절 · 수장절)	10월 10일

https://cdn.weekly.chosun.com/news/photo/202210/22438_43425_831.gif

축제와 예배/제사 순서

우리가 성금요일을 기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예고했던 이집트에서의 첫 번째 출애굽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부활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것을 최후의 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본다. 마치 첫 수확의 열매가 이후 전체 수확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

성령 강림절(오순절)에는 성령의 은사와 모든 영적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구약에서는 또한 우리의 물질적 축복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상기시킨다.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후대에 그들의 달력에 추가한 푸림절(제비뽑기)의 축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훨씬 나중에 제정한 봉헌절(히브리어로 하누카)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푸림절은 에스더 시대 페르시아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다. 하누카는 종종 빛의 축제로 불리며, 시리아의 안티오크스에 피파네스에 맞서 마카비(하스몬 왕조)들이 일으킨 반란과 기원전 165년 성전의 재봉헌을 기념하는 축제다.

바빌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은 다른 금식일들도 지키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제사 번제물 - 하나님과 제사로 만남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빈번한 제사를 제정 하셨는가. 믿음과 회개와 감사로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오늘과 장래를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마음문을 열어라

	절기명	날자 유대인달 /일	태양 력달	번제물			속 제 물 염 소	말씀(민수기)
				소	수 양	양		
A	아침/저녁	매일				2		28:3-8
B	안식일	토요일				2+ A		28:9-10
C	월삭	매월첫날		2	1	7+ A	1	28:11-15
D	유월절 Passover	1/14	3 월 4 월 봄			1+ A	1	28:16
E	무교절	1/15		B				28:17-25
	Chag Hamatzot	15(1)		2	1	7+ A	1	
		16(2)		2	1	7+ A	1	
	Unleaven Bread	17(3)		2	1	7+ A	1	
	일주일	18(4)		2	1	7+ A	1	
	회개로	19(5)		2	1	7+ A	1	
	마음을	20(6)		2	1	7+ A	1	
	씻음	21(7)		2	1	7+ A	1	
F	칠칠절 초실절 Shavout	3/4	5 월	2	1	7+ A	1	28:26-31
G	나팔절 Rosh Hashannah	7/1	9 월 10 월 가을	1+ C	1+ C	7+ A+ C	1	29:1-6
H	속제절 Yom Kippur Day of atonem- ent	7/10- 14		1	1	7+ A	2	29:7-11
I	장막절	7/15		B				29:12-38
	초막절	15(1)		13	2	14+ A	1	
	광야를	16(2)		12	2	14+ A	1	
	기억	17(3)		11	2	14+ A	1	
		18(4)		10	2	14+ A	1	
	Feast of Booth	19(5)		9	2	14+ A	1	
		20(6)		8	2	14+ A	1	
		21(7)		7	2	14+ A	1	
	Sukkot	22(8)		1	1	7+ A	1	

66.4.3 성막과 성전

광야의 장막



기록된 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8)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9:45-46)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찌니라 (출애굽기 25:9)

솔로몬 성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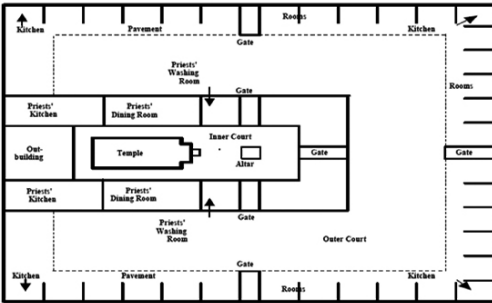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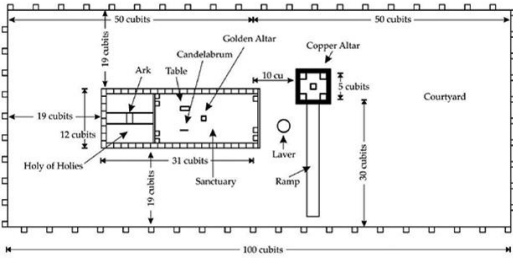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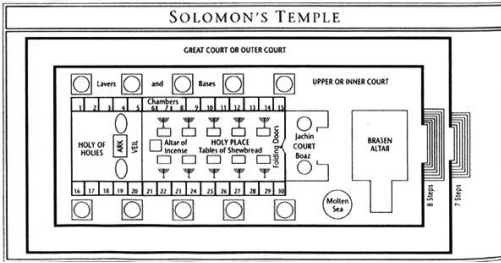
법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법궤는 기원전 586 년 바빌론의 예루살렘 정복 중에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66.4.4 제 2 성전

기록된 바: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육십 규빗으로, 광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켠에 새 나무 한 켠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기명을 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찌니라 하였더라. (에스라 6:3-5)



66.4.5 교회, 마음에 있는 성전



기록된 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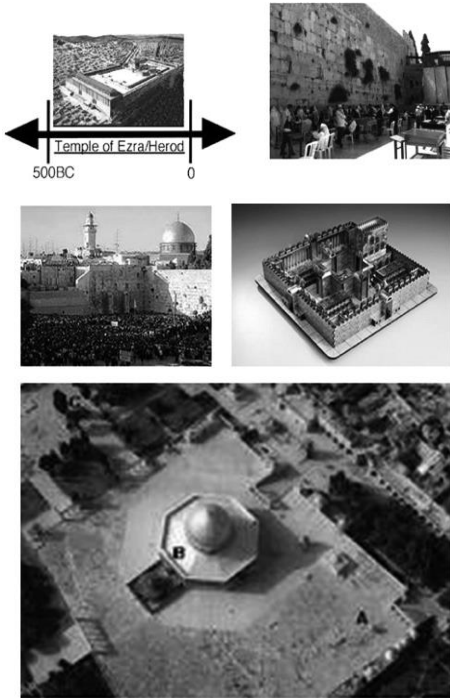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16-17)

66.5 유대인의 제삼성전 갈망 (에스겔 40-48)

<http://www.templemount.org/tempprep.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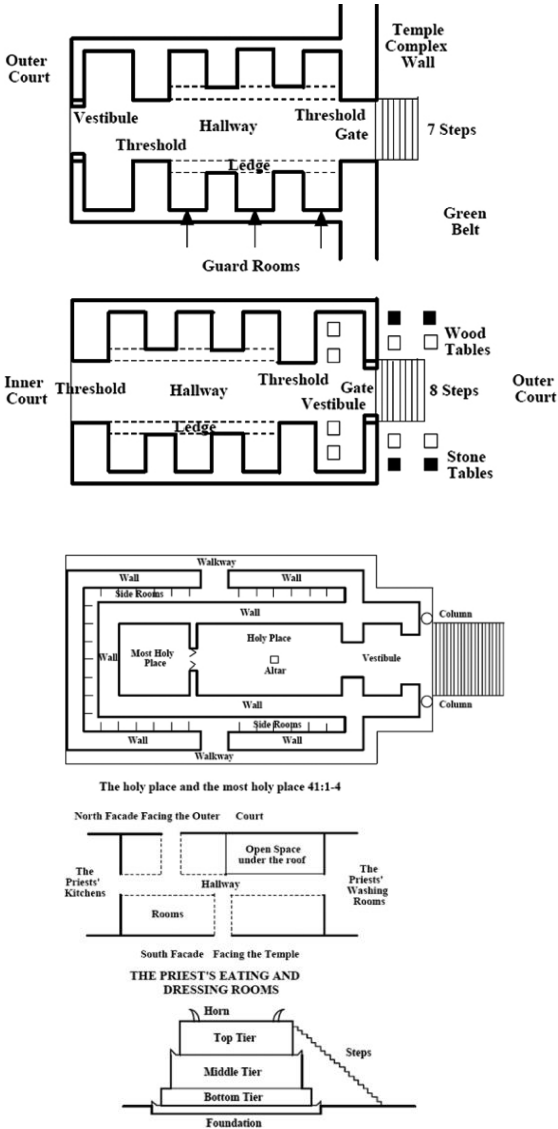
<https://thirdtemple.org/en/>

http://www.templestore.com/catalog/product_info.php?products_id=188&osCsid=36d8able09815320d3523218c573dbf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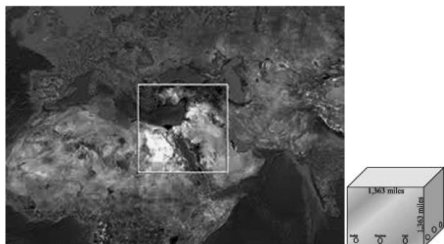
세 번째 성전 건설은 중동의 평화를 필요로 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파괴적인 전쟁 이후에 올 수 있다.

에스겔 제삼 성전도



66.6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크기 조감도 (2200 Km²)



기록된 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 이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
사십 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세째는 옥수요
네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
한째는 청옥이요 열 둘째는 자정이라

열 두 문은 열 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요한계시록 21 장)

67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67.1 거짓 선지자의 역사

[] 예언의 은사는 무엇인가?

[] 예언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화자가 청자에게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가?

[] 그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 기적을 행하는 자들과 예언자들이 진정성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너희 가운데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너에게 표적이나 기사를 보여주고, 그가 말한 그 표적이나 기사가 이루어질 때,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자' 하거든 너는 그 예언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시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매여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예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구속해 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에서 너희를 떠나게 하려고 말하였으므로 죽여야 한다.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신명기 13:1-5)

67.2 지금 지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질문들:

[]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 예언자가 파괴적인 예언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각각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는 타작마당에서 왕좌에 앉았고, 모든 예언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였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된 뿔을 만들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뿔로 아람 사람을 찔러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고, 모든 예언자도 이같이 말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하라.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셨다' 하였다. 그때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예언자들의 말이 한결같이 왕에게 좋게 하오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하나처럼 왕에게 좋게 말하소서' 하였으나, 미가야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리라' 하였다. (열왕기상 22:10-14)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죽게 할까?' 하셨다. 한 이는 이 방법으로, 다른 이는 저 방법으로 말하더니,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셨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 거짓된 영이 되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설득하겠고 또한 이길 것이니 나아가 그리하라' 하셨다. 그러므로 보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예언자의 입에 거짓 영을 넣으셨으며, 여호와께서 재앙을 너에게 선언하셨느니라. (열왕기상 22:20-23)

67.3 참된 예언자:

[]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 시드기야처럼 청중을 만족시키는 예언자는 누구인가?

[]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여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가?

[] 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는가?

[] 소명을 잊은 지도자나 추종자들의 공통된 증상은 무엇인가?

[] 사람들이 왜 예언자를 찾는가?

기록된 바: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2)

많은 예언자가 라못 길르앗에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나,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합 왕은 변장을 했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있었지만, 미가야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예언하였다.

67.4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인가?

당신은 자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기를 원하는가? 다음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있는가?
2.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가?
3.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4.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5. 마음속에 증오가 없는가?
6.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고 있는가?
7.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가?
8. 진리를 위하여 증언하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증언하지 않는가?
9. 다른 이의 것을 탐내지 않는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바른 성품을 갖추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자질들이 있는가?

1. 그를 알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
2. 잃어버린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 슬퍼하는 마음
3.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5.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
6.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
7. 화평을 이루는 자
8.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죄는 귀를 막고,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며, 마음을 흐리게 하여 의로운 결정을 내리거나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경건은 지도자와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 이러한 자질을 가져야 한다: 가난한 영혼, 함께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순결한 자, 화평을 이루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67.5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기록된 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고린도전서 4:19)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17)

A. 오염을 분별하라

- [] 무엇이 나의 삶을 삼키려 했는가?
- []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 [] 참된 의미를 듣고 사람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할례 받은 귀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 할례 받지 않은 귀의 증상은 무엇인가?

[] 왜 거짓 예언자들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만들 수 없는가?

기록된 바: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와 독주로 인하여 잘못을 범하였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독주로 인해 길을 벗어났으며, 포도주에 빠져 헤매고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보고, 판단이 흐려졌다. (이사야 28:7)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묻지 않았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며, 통치자들도 나를 거역하였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예레미야 2:8)

이 땅에서 놀랍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나의 백성들은 그것을 기뻐하나, 마지막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예레미야 5:30-31)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으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조금 고치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으나 평안이 없었느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질 자들 중에 넘어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은 쓰러지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6:13-15)

B. 거짓된 환상을 분별하라

[] 거짓된 예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거짓 선지자, 목사, 교사들의 공통된 특성은
무엇인가?

[]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가?

[]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무엇인가?

[] 사람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가?

기록된 바: "네 선지자들이 너를 위해
거짓되고 기만적인 환상을 보았으며,
네 죄악을 드러내지 않아 너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너를 위해 거짓된 예언과 속임수를
보았도다." (예레미야 애가 2:14)

불순종하고 더럽혀진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억압하는 도성아!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으며,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도다. 그녀의 통치자들은 그녀의
가운데서 포효하는 사자들이며, 그녀의
재판관들은 저녁에 남은 뼈를 남기지
않는 이리들이며, 그녀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며,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에 폭력을 행하였도다. (스바냐
3:1-4)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에는 악탈하는 이리니라. (마태복음 7:15)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나니. (히브리서 4:12)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마태복음 15:19)

67.6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

[]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가?

[] 누가 모욕과 박해 속에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

[] 말을 도둑질하는 예언자들의 별은 무엇일 수 있는가?

[]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백성이 자기를 치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머리와 꼬리를 하루에 다 끊으시리니, 그 장로와 존귀한 자가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꼬리니라. 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을

미혹하니, 그들을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멸망하리라. (이사야 9:13-16)

그러자 내가 말하기를, "아, 주
여호와여! 보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칼을 보지
못할 것이며, 너희에게 기근도 없을
것이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명령하지도, 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된 환상과 점술과
허무한 것과 그들 마음의 속임수를
예언하였도다. (예레미야 14:13-14)

67.7 어리석은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주의 능력 안에서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도둑질하는
예언자들로부터 내가 대적하노라. 보라,
내가 대적하노라. (예레미야 23:30-
3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 있을지이다.
그들은 자기 영을 따르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에스겔 13:3)

67.8 주의 명에 없이 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예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38)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30)

67.9 심판의 날과 어리석은 예언자를 분별하라

[] 왜 거짓된 예언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는가?

기록된 바: 심판의 날이 왔으며, 갇음의 날이 이르렀나니,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는 어리석고, 신령한 사람은 미쳤으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원한이 많음이라. (호세아 9:7-8)

그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의 제사장들은 삿을 받고 가르치며, 그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3:11)

67.10 거짓 선지자들의 무정함

[]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 하나님의 집을 누가,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 나의 삶을 통해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 불순종은 왜 우상 숭배와 같은가?

[] 탐욕은 어떻게 불순종을 초래하는가?

[] 탐욕은 왜 우상 숭배와 같은가?

[] 참된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가?

[]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 바꾸지
않으시는가?

기록된 바: 그날이 이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왕의 마음과 고관들의
마음이 없어지고, 제사장들은 놀라고,
선지자들은 놀라리라. (예레미야 4:9)

내 안에서 선지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깨졌고, 내 모든 뼈가 흔들리며,
여호와와 말씀과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나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압도당한 사람 같도다. 이 땅이
간음하는 자들로 가득 차서 저주 때문에
땅이 애통하며, 광야의 즐거운 곳이
말라버렸다. 그들의 길은 악하고 그들의
힘은 바르지 않다. 선지자와 제사장
모두가 사악하니,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보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9-11)

세상의 왕들과 온 땅의 주민들이
대적자와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으니, 이는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불의
때문이었느니라. 그들이 의인의 피를
그들 가운데서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눈이 멀어 떠돌며, 피로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아무도 그들의
옷을 만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외치기를, '멀리 가라, 부정하다!'
하였고, '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도망가고 떠돌자
민족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더 이상
여기 거하지 않으리라' 하였도다.
(예레미야 애가 4:12-15)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으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쫓아내려고 그들을
예언하게 하였고, 너희와 함께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은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예언하며 여호와와
집의 그릇들이 이제 곧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고 말하는 너희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말을 예언하느니라.' (예레미야
27:15-16)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나를
노하게 하려고 그들이 행한 모든 악
때문이라.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일찍 일어나
그들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교훈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가증한 물건들을 두어 그
집을 더럽혔느니라. (예레미야 32:32-
34)

그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의 음모는
먹이를 찢는 포효하는 사자 같으니,
그들은 사람들을 삼켰으며, 재물과
귀한 것을 탈취하고, 그 가운데 많은

과부를 만들었느니라.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어기고 내 거룩한 것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내 안식일을 숨겨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에스겔 22:25-26)

그날이 이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끊어버려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또한 그 땅에서 선지자들과 부정한 영을 없애리라. 그때 만일 누구든지 여전히 예언할진대, 그를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였으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를 낳은 부모가 그를 찌르리라. 그날이 오면,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환상을 부끄러워하여 예언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거친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요, 그 대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가축을 기른 사람이라' 하리라. (스가랴 13:2-5)

67.11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택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마저도 적그리스도에게 속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더 쉽게 속아 영원한 파멸로 이끌릴 것이다.

[]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임을 믿을 수 있는가?

기록된 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24)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베드로전서 4:17)

시련은 나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고, 나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게 한다.

67.12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적인 속임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기록되어 있다

[] 왜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한 영에 쉽게 노출되는가?

[]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악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9-10)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하던 그 이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여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주어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14-15)

마지막 때의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올 때 속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록된 바: 그 불법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시리니,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테살로니가후서 2:9-12)

67.13 교회에 열려 있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기록된 바: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으나, 나타난 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29:29)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3:1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자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세,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에베소서 1: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후서 1:3)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20)

67.14 교회

교회 역사의 전당

<http://www.spurgeon.org/~phil/hallmap.htm>

기독교 내에 왜 많은 교파가 있는가?

교회

[] 성전이 교회로 간주되는가?

[] 건물이 교회인가?

[] 교회로 간주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정상적인 교회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그것들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교회를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 교회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누가 교회를 사셨는지 알고 있는가?

[]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일곱 교회는 무엇인가?

68 특별한 부름

68.1 부르심

[] 우상 숭배와 탐욕스러운 마음은 무엇이며,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가?

[]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특별한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나의 대화 중 어떤 것이 기록될까?

기록된 바: "또 내가 보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용을 잡으니 곧 예뻐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놓여 주리라... (요한계시록 20 장)"

68.2 제자

68.2.1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

[] 어떤 일이 영원히 남을 열매를 맺을까?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는 무엇인가?

[] 죄인은 누구일까?

[] 왜 예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셨을까?

[]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기록된 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16)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13-19)

68.2.1 첫 제자에게 주어진 부르심

[]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 부르심을 들었는가?

[] 왜 예수는 제자들이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을까?

기록된 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14-20)

68.2.3 요한의 제자들

[] 나는 왜 메시아를 원하는가?

[] 나는 어떻게 메시아를 찾았는가?

기록된 바: 이튿날 요한이 다시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1:35-42)

68.2.4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 예수의 친구와 따르는 자들은 누구일까?

기록된 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아오거늘, 이에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 갈릴래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그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서 예수를 따르더라. (마가복음 2:13-17)

68.2.5 사울을 부르심

[]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셨는가?

[]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는가?

[]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 왜 교회에 바나바가 필요한가?

기록된 바: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9:1-31)

68.2.6 사용 또는 이용

하나님께서 묻는다, "내가 사람들의 추천을 구하여 내 제자를 선택하겠느냐? 내 선택은 나의 결정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나는 나에게 순종할 자에게 내 일을 맡기고, 나에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들 이용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 왜 교회에 많은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

[] 하나님께서 왜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셨을까?

[]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에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왜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실까?

기록된 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1-23)

12 제자 중 누가 악에게 사용되었는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깨끗한 그릇과 같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 날에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준비된 잔치에 들어오라" 하시겠지만, 악과 하나님께 둘 다 사용된 자에게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를 떠나가라" 하실 것이다.

기록된 바: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태복음 13:24-30)

천국은 또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마태복음 25:14-30)

68.2.7 사명을 자원하다

- [] 땅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 [] 무엇이 나의 죄책을 없앨 수 있을까?
- [] "내가 누구를 보내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가?
- [] 왜 이스라엘 백성은 어둠 속에 남겨졌을까?

기록된 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여섯 날개가 있어 (이사야 6:1-13)

68.2.8 제자의 되는 대가

- [] 왜 예수는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으면서도 따르라고 하셨는가?
- []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모든 소유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인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다른 제자가

이르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18-22)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33)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급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26-2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7-9)

69 박해 속에서의 기쁨

69.1 베드로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 사도들이 어떻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질 수 있는가?

[] 복음의 증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같은 태도와 순종을 가질 수 있는가?

[]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셨고, 교회의 권리는 무엇인가?

[] 예수님을 위해 서 있다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를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로들을 다 모은 후에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그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말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심하여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말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 아니한 것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꺾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하고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이나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의 말을 좇아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17-42)

69.2 스데반

[] 왜 교회의 박해가 복음 전파를 멈출 수 없었는가?

[] 왜 세상 종교는 사람들을 눈멀게 하는가?

[] 왜 표적과 기사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없는가?

[] 왜 성령이 없는 교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가?

기록된 바: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8:1-3)

69.3 그리스도 제자 자격 3 가지

69.3.1 타협하지 않음: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체크리스트

[] 만약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기록된 바: [1]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진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여 능히 완성하겠는가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고 능히 완성하지 못하였도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열만 명으로 저 이십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 만일 할 수 없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14:26-35)

69.4 제자의 자질

성령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라

[]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 종이란 무엇인가?

[]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행하는도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이거늘, 이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위를 하는도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음행으로 난 자가 아니요, 아버지는 하나님뿐이시라" (요한복음 8:31-41)

69.5 욱신은 아무 유익이 없다

69.5.1 왜 그를 따르는가

[] 예수께서 "욕신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거듭남"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지만 또한 나의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기를 팔 자를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요한복음 6:60-71)

69.5.2 십자가를 지라

[] 나의 인생을 옳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 무엇이 방해하는가?

[]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 날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의 영혼을 위해 영생을 가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27)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34-38)

69.5.3 주님을 항상 앞에 모셔라

- [] 무엇으로 그의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가?
- []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유업은 무엇인가?
- [] 어떻게 주를 항상 앞에 모실 수 있는가?

기록된 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씹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

69.5.4 첫사랑과 타협하지 않음

[] 무엇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0:37)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26)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는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스가랴 13:3)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명한 나의 제사와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 못하게 하느냐? (사무엘상 2:29)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으로다 (신명기 33:9)

70 시험과 통과

70.1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험

[] 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실패하는가?

[] 순종이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산 중 한 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떠났다.

셋째 날, 아브라함은 멀리 그 장소를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삭이 말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배열한 후 이삭을 묶어 그 위에 올렸다.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 그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 그때 여호와와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천사가 말했다.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가 네 아들, 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뒤에 한 숫양이 뿔이 덩불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다. 그 장소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도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말한다.

여호와와 천사가 하늘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고 네 아들, 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네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들었음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돌아와 함께
브엘세바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였다.
(창세기 22:1-19)

70.2 예수와 광야 시험

[] "기록된 바"라는 말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인 이유는 무엇인가?

[]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40 일 40 야를
금식하시고 나서 시작하셨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리고 말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다.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갔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다. (마태복음 4:1-11)

70.3 제자의 특권

[]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 충성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성령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기록된 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을 써야 하며, 힘쓰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마태복음 11:12)

이는 여호와와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펴 자기를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심이라. (역대하 16:9a)

성령과 불의 세례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록된 바: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 대신에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 61:1-3)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마태복음 3:11)

70.4 여호와와 말씀

여호와와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 나는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이
현신된 마음은 마치 다락방에 모여 순종과
기도로 기다리던 제자들과 같다. 제자들은
약속된 능력을 위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맛보았다.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자들만이 이 능력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라 자처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섞고 있지 않은가? 만약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함이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 예배는 인간의 계획이나 방법, 또는 교리로 혼합되지 않을 것이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락방의 순수한 예배처럼 될 것이다. 많은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으며,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적절한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의 기름부음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생각해보라.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격려하라. 주어진 말씀은 녹음된 교훈이나 보충 교사가 아니라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축복은 그들에게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그들이 스스로를 제자라 칭할지라도,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버림받을 것이다.

다락방의 120 명의 제자들은 필요하다면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나도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제자들 중 하나라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못했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게으른 자가 있었는가?

세상은 악의 영향 아래 있으며, 죄는 죄를 낳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깨어 있으라.

선교에서 내일이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처음 만난 사람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 지도자들이나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고 믿었던 자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신으로 몰아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적인 잉태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는 편견을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70.5 나의 제자들아,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지혜는 끝이 없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신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시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들을 돌보실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를 부유하고 강하게 하셨으며, 홍해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손에 붙들고 있으며, 이집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미국을 사용하고 계신다. 역사의 목적을 생각해보라. 지혜롭게 분별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록된 바: 내가 보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말하였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도다!" (요한계시록 5:13)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시련과 어려운 때가 올 때에도 감사하라.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보여준 것을 선포하라. 사탄은 네가 일하는 것을 멈출 때 기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사 말씀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곧 오실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읽고 믿으며 실천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70.6 목적 달성

[] 이 세상에서 승리자라는 표시는 무엇인가?

[]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쉼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찌어다 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 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사야 42:10-13)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깊도다!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33-36)

70.7 순교자

70.7.1 이삭의 제물로서의 순종

[] 이삭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배열한 후,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창세기 22:9-10)

70.7.2 스테반, 첫 돌파구

[] 거짓 증인들 뒤에 누가 있으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

[]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시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백성들 가운데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해방된 자들의 회당(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서 스테반과 논쟁하는
자들이 일어났다. 그들이 스테반의
지혜와 성령을 대적할 수 없으므로
몰래 사람들을 사주하여 말하게 하였다.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스테반을 잡아 공회로
끌어갔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며 말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듣기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고치리라 하였소."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도행전
6:8-15)

기록된 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11)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않도록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니라. (로마서
11:25)

스데반은 악한 세대 속에서 맺혀진 의의 열매였으며, 선과 악을 아는 아담의 후손이었다.

[]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가?

[]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이유는 무엇인가?

[]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원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이 땅에서 거룩한 곳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을 소유했으나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의 종으로서의 의무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교회에서 의로운 목소리를 무시하고 분노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박해 중에도 우리의 증언을 견고히 세우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대제사장이 그에게 물었다. "이 말이 사실이냐?" 이에 스데반이 대답하였다. "형제들과 아버지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회중 앞에서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다. 그는 그 땅에서 정착할 아무런 소유를 받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상속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후손들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후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할례의 언약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에게 할례를 주었으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족장의 아버지가 되었다.

열두 족장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지혜를 주어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요셉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고, 그 당시 큰 기근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이르러 큰 고통이 닥쳤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구하고 이집트로 이끌어 들여 75 명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머물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그는 아름다운

아이로서 3 개월 동안 부모의 집에서 보호받았다. 그러나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에 의해 양자로 입양되어 왕궁에서 자랐다. 그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로 교육받아 말과 행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모세가 40 세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한 이집트 사람을 죽여 동족을 도와주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세는 두려워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40 년을 보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라고 명령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로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통해 인도해 내었다. 그는 광야에서 40 년 동안 백성을 이끌며, 여러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의 별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어주셨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선지자들을 박해한 역사를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목이 곧은 자들이며,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의인이 오실 것을 예언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 너희는 천사들을 통해 율법을 받았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자들은 분노에 차서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는 외쳤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그때 그들은 스테반을 돌로 칠 때, 그들의 겹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스테반은 돌에 맞으면서 기도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외쳤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는 잠들었다. (사도행전 7:1-60)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실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섰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71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원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인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풍성함이 있다.

71.1 주를 항상 앞에 두고, 그와 동행하라

[] 무엇이 나로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가?

[] 무엇이 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가?

[]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가?

[] 부활의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내가 당하는 시련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피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찌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 편)

다윗 왕은 부활을 믿었고,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였다. 나의 헌물은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헌물의 목적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드린다. 나는
주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TO BE

71.2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

창세기 1 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정상'이 무엇인지 기준을 세운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이 정상이며, 균형 잡힌
삶이다. 이러한 균형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한다.

주를 항상 나의 생각 속에 두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타이밍과 길, 그리고 뜻에 맞추라. 그러면
주의 은혜가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이 균형을 잃으면 죄인의 길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일을
돕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으나 하나님의 길보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한

야곱과 리브가는 목적은 이루 있으나 아주 어렵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71.3 '정상'적인 삶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벗어나지 말라. 나의 분야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멈추고 다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는 현명하나, 무모한 투기는 그렇지 않다.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와 훈련을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며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랑을 추구하면 그 가정은 파괴될 것이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영혼을 분열시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정상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71.4 정상작의 표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한다. 그들의 마음은 텔레비전, 뉴스, 말씀의 묵상, 라디오, 찬양과 예배, 또는 길모퉁이나 시장, 일터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도 주를 만나는 것을 열망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진지한 갈망에 응답하신다.

나는 얼마나 자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극단적인 때나 어려운 시기에만 찾는가? 사랑하는 자들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자주 그들과의 만남을 우선시하는가? 계속해서 당신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를 얼마나 열망하는가? 주께서 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지 이해하는가? 주께서 문을 두드림을 알아차리고 문을 열어드렸는가? 초청해서 주님과 식탁을 나누었는가?

71.5 신뢰할 만한 자가 되라

[] 누가 마귀로 부터 와서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 복음을 전할 때 왜 어려움을 겪는가?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어다 (베드로후서 1:1-2)

무슨 일을 당하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내가 가서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어떠한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듣게 되리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1:27-30)

71.6 남편과 아내

[] 성경에 기록된 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에서 신실함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다.

기록된 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 없는 생활로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이 너희의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볼 때 그렇게
하리라.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머리를
꾸미고, 금 장식이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속의 숨은
사람으로써 하나님의 앞에서 값진
온유하고 조용한 영을 가진 자라. 이는
하나님을 소망하던 옛날의 거룩한
여인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아름답게 하던 것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두려움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와 함께
지내며 그녀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라. 이는 그녀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이니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베드로전서 3:1-7)

71.7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라

이슬처럼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은 오염될 수 있고, 기름도 오염될 수 있다. 그러나 이슬은 오염될 수 없다. 악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더럽히지만, 이슬은 결코 희석되지 않는다. 이슬은 순수하고 타협하지 않는 물이다. 모든 이들은 광야를 지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받았는지 배워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분된 이유를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슬의 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도 말씀을 기억하사 쓸개를 탄 식초를 마시지 않으셨다.

이슬은 세상과 악의 권세를 이긴 자이다.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에 헌신하는 자이다. 성도는 생명의 저자이자 영원한 신랑을 기쁘게 순종한다. 성도는 첫사랑을 지키고 순교자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다. 이슬은 거룩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이다. 그는 충실한 종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올바른 제사를 드린다. 이는 그의 창조물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슬은 조건 없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한다.
이슬은 참여하는 자에게 힘을 공급한다.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록된 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요한계시록 5:13)

71.8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거부

[] 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도록 기도해야 하는가?

[] 우리의 공동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와 가장 적게 필요한 자는 누구인가?

기록된 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로마서 9:1-5)

71.9 에베소서 1 장

인사

기록된 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1-2)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세는가?

기록되었으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은혜를 따라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된 것이라.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것 곧, 때가 찼을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경륜을 우리에게
알리셨느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또한
기업을 얻었으니, 모든 것을 그 뜻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그의 뜻을 따라
예정되었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자들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3-12)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나는 이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영적인 지혜를 위한 기도

[] 편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가?

[] 어떤 것이 편견의 행위가 될 수 있는가?

[] 누가 성령의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을 구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니, 이는 그 얻으신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그의 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곧,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13-23)

71.10 에베소서 2 장

[]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 인간이 만든 평화가 왜 지속되지 않는가?

[] 나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1-22)

71.11 시편 110 장

[] 무엇이 내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가?

[] 주의 이슬은 전투의 날에 다른 자들과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가?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께서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리이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자원하는 백성이 될 것이니,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시며,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시리로다. 그가 여러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부수시리로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그런즉 그가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0:1-7)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호세아 14:5)

71.12 룯의 삶, 이슬로 인정받다

룯의 이야기는 단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벽 이슬"과 같은 삶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룯기 1:6)

71.12.1 때를 분별하라

[]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말씀의 권고가 우리의 상상 너머라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3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28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
28:23-26)

71.12.2 롯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였다

롯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였다. 그녀는
나오미를 섬기고 존중하였으며, 나오미가
그녀에게 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였다. 이는 십계명에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다.

롯은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영을 가졌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갖고 섬김과 봉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롯은 이기적인 동기 없이 나이 많고
약한 나오미를 사랑하였다. 이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였다. 이기적인 동기로 섬기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믿음과 같다. 내가 나타내는 사랑이 어떤 종류인지 반성하라.

룻은 인생의 어려움을 직면하였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굳건히 서 있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 룻이 받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71.12.3 룻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선교사들은 에녹과 같이 그들의 가족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 에녹은 65 세에 므두셀라를 낳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딸을 낳았으며, 그의 가족의 필요를 돌보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룻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성실히 일하였다. 그녀는 곡식을 줍는 일에 충실하였고, 조롱을 참아내며, 땀을 흘려 일하였으며, 하나님과 나오미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차별을 무시하였다. 하나님은 룻의 견고한 헌신을 인정하시고 보아스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충성스럽게 몇 마리의 양을 돌보던 다윗을 택하셨다. 이것이 이슬의 성품이다.

72 이슬의 생활 방식

세상에 물들지 말고, 청결하고 거룩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라,
생각을 청결하게 유지하라,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라,
삶을 청결하게 유지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시련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슬은 추운 밤과 이른 아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청결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이슬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현재의 모습이다. 이슬은 자신의 마음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맡긴다. 이슬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지혜로우며, 지혜를 따르고, 세상이 제공하는 손쉬운 해결책을 멀리한다. 이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슬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를 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믿음 속에서 찾을 수 없다. 올바른 말을 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련을 겪을 준비를 하라. 주님의 법궤를 실어 나른 송아지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생각하라. 불순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임을 명심하라. 불순종의 상황에서 사탄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라.

72.1 이슬의 규칙과 매일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동일한 말씀을 계속 깊이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

72.2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롯의 믿음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데서 드러난다. 그녀는 부모와 고향, 그리고 민족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낯선 땅은 그녀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피난처를 찾으면서 익숙한 땅이 되었다. 그녀의 상황은 어려웠고 자원이 부족했지만, 롯은 자신을 돌보며 나오미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제자의 여정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선교지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72.3 올바른 선교 방법을 보여줌

롯의 예에서 배워라. 그녀가 낯선 땅에서 어떻게 돌봄을 받았는지를 보라. 이삭 줍기는 화려한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태도는 나오미를 존중하였고, 그녀의 봉사는 빛나서 그 지역 사회가 그녀의 노력을 칭찬하게 했다. 선교지에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을 받기 전에, 너의 일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롯의 신실함, 부지런함, 겸손함, 그리고 봉사를 받으셨다. 그녀는 주어진 임무에 부지런하였다. 하나님은 마음과 손을 사용하는 부지런한 일꾼을 찾으신다. 왜 롯이 이삭을 주워야 했는가? 모든 곡식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분별하여야 한다. 모든 곡식의 거의 절반은 먹을 수 없다. 모든 일꾼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분별하고 구분해야 한다. 이삭 줍기는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기초적인 일이다. 노력하고

주어진 임무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롯과 다말의 신실하고 순종적인 행동은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은혜를 얻었으며,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축복하셨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72.4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라

하나님은 롯의 신실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시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녀가 최선을 다한 것을 주목하셨다. 하나님은 그녀의 자격을 인정하시고 그녀를 메시아 가문의 일원으로 삼으셨으며, 보아스와 결혼하여 축복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그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다. 이 예들을 깊이 묵상하고, 잠언 31 장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 어려운 시련은 하나님의 시금석이 되어 그분의 자녀들을 다듬으신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흐른다.

기록된 바, "또 주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먹이는 암양을 따라가던 그를 이끌어 야곱, 곧 주의 백성을 치게 하시며, 이스라엘, 곧 주의 유업을 치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공교한 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78:70-72)

[]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격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려 온 자로 인하여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 여종만도
못하오나 당신이 이 여종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기 2:12-13)

룻의 삶에서 시편 91 편이 이루어졌다.

[] 당신의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72.5 순종이 가져오는 평화와 기쁨

왜 순종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무슨 목적으로?

세상은 비 오는 날을 대비해 자원을 비축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원을 준비한다. 그분의 왕국에는 비 오는 날을
대비할 필요가 없음을 신뢰하고 알아라.
하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나눌
수 있도록 자원을 비축하였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확립된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훈련하라. 세상의 지혜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배워라.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일할 때, 우리의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모세가 광야에서 한 일은 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의 영을 통해 성취되었다.

창세기의 원칙과 십계명은 열심히 일하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듣는 대로 순종하라는 부르심이었다.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열심히 일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순종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라. 세상의 모든 일과 성취는 안개와 같으나, 주님의 일은 너의 보상이며 영원한 영광이다.

[] 부주의한 말, 부적절한 행동, 탐욕스러운 행동이 심판 날에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22-23)

이유 없이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 당신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성적으로 질문하지 말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당신의 지식의 한계를 알면, 당신의 지식이 증가할 때 더 큰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으라.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또는 먼 곳에 계신 것으로 한정시켜 그분을 제한한다. 그분은 당신 옆에 앉으려 오셨지만, 당신은 그분을 초대하지 않거나, 더럽고 부패한 마음과 정신으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축복받은 경배의 거룩한 자리를 만들고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측정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여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보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다.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심판 날에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슬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을 찾다가 주님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다가 주님을 발견한다. 또 어떤 사람은 찾고 두드리다가 주님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보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슬 공동체의 모습을 당신 안에 그려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12-16)

72.6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기록된 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1)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당신의 가족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분의 뜻에 집중한다. 당신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로 가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기도와 믿음을 통한 신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라. 당신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분은 결과와 만족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 종의 일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 달려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는 11 일밖에 걸리지 않아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 년이 걸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었다.

73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하였는가?

기록된 바: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전도서 3:1)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 나는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은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는 홍해로 가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지식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과와 만족을 가져다주신다. 우리는 그의 종이며, 종의 일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 달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데는 11일이 걸리는 길이나 그들은 40년이 걸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었다.

73.1 희생

[] 나의 삶에서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욕심이나 욕신의 욕망이 아닌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기록된 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죄인들의 이런 대항을 참으신 그를
생각하라.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2:3)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굳게 잡고,
손이 깨끗한 자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욥기 17:9)

주 외에는 자기를 양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사야
64:4)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8:1)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홀하심을 입은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궤흘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고린도후서 4:1-2)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8)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16)

73.2 신실함

[]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임무를 어떻게 찾는가?

기록된 바: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1-2)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로마서 1:1-7)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10)

73.3 약한 자를 받아들임

[] 의견 충돌을 이겨내는 승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 어떻게 혀를 제어하여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 어려운 과업 중에 감정이 결정을 흐리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쏘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찌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에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1-23)

73.4 충성

[] 어떻게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가?

[]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마음이 온전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9a)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33:15)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13)

[] 어떻게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 주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키며,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나의 행동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 왜 적은 나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가?

[] 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 은혜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나의 입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주를 초대하는가?

[] 예수님께서 시험에 직면했을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악을 인내와 선한 행실로 이기며, 주를 나의 마음에 초대하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며 끝까지 충성스럽게 나라를 섬겼다. 그는 그곳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우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세우셨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일에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신다.

73.5 명예

[]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기록된 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 아버지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한복음 14:15-31)

73.6 온전함

[]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영생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저주를 받은 세상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는 어떻게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하게하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동기, 마음

기록된 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यो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1-10)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시편 101:1-2)

73.7 겸손

[]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상 숭배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찌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로마서 11:11-24)

73.8 서로와 조화

[]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표징을 목격하는가?

기록된 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체휼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찌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22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8-22)

73.9 용기

[]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가?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13-25)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에레미야 1:17)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레미야 11:4)

73.10 절제

[]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함정은 무엇인가?

[] 함정을 어떻게 피하는가?

기록된 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틀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찌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8-11)

73.11 장로 존경

[] 집회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존경의
태도는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경을 배울 수 있는
문화적 관습들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전서 5:5-6)

73.12 인내

[] 어떻게 세계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가?

[]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성품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찌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궁핍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1-13)

73.13 완전함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 나는 얼마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까?

파라오가 "어디에서 영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묻자, 그는 곧 요셉이 그
 인물임을 깨달았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셨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를 찾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팀에 속할 수 없었다. 수년간 주님과
 함께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라. 모든 것에는 때와
 한계가 있음을 잊지 말고, 계절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74 태도

74.1 항상 기뻐하라

[]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주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찾는가?

[] 일상생활에서 나눔과 베품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하나님에게 나의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의 미래를 파괴로 이끄는 과도한 노동의
패턴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iero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엮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불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갇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iero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배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어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
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붙잡아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시편 37 편)

74.2 모든 일에 감사하라

74.2.1 너희 구원을 이루라

[]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로부터의 요구를
거절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가치를 보여주시는 것에 온전히
삶을 헌신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발견했는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사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12-18)

74.2.2 주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유익함

[] 복음을 언제, 어떻게 나누는가?

[]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엇을 하는가?

[] 나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라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12-2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74.2.3 어느 곳에서든지

[]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시도록 어떻게 협력하는가?

[] 어떻게나의 삶을 의의 열매로 채우는가?

기록된 바: 그리스도 예수와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서 1:1-11)

74.2.4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라

[] 우리 중에서 가장 작은 자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는가?

[] 복음에 담긴 능력은 당신을 어떻게 강하게
하는가?

[]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양육한 자들과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는가?

[]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증거는
무엇인가?

[] 착하고 충성된 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찌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권속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1-27)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베드로전서 5:12-14)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공활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공활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25-30)

74.3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 선물을 구하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 사랑이 위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사랑의 선물을 위해 기도하는가?

기록된 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후서 1:5-8)

75 연습

75.1 혀 길들이기

[] 왜 나는 나의 혀를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왜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어려운가?

기록되었으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산림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름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졌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1-12)

75.2 거룩함

거룩함은 구별된 것, 주께 속한 것을 의미하며,
세상과 다른 법을 따르는 것이다.

[] 거룩함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신명기 6 장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방법을 명령한다. 그것이 무엇이며 원리는
무엇인가?

[] 불순종이 삶에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빔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칠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칠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칠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뵈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찌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와 의 것이니라
(출애굽기 13:1-12)

75.3 우상에서 떠나라

[]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하늘 여권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요한일서 5:13-21)

75.4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세례 받음

[]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는 죄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악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아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찌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1-14)

75.5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것 같이

[]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소망 안에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가?

[]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역사토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찌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13-25)

75.6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 1) 눈을 뜨고 눈먼 자들이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되지 말라.
- 2)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앉으라.
- 3)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라.
- 4)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 5)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되라.
- 6)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 7)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
- 8) 이슬과 같이 되라.
- 9) 몸을 더럽히지 말라.
- 10)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 11) 삶을 더럽히지 말라.
- 12) 복 있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라.
- 13) 시련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 14) 주신 표를 붙잡으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분리하고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별된 표를 주셨다.
- 15)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 16) 비판과 판단을 멈추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 17) 여호와 하나님은 다섯 남편을 두었던 간음한 여인을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라.
- 18)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따르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 그의 외아들을 보내셨다.

- 19)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 20) 부지런히 일하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들은 "죽음"에 합당하다는 뜻이다.
- 21)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 22) 하나님이 가난하신가?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 23)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

75.7 순수함

[]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세상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그것을 비추는가?

[] 빛 안에서의 교제가 죄를 인식함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역설적인 진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땅의 소금이 되는 능력은 내가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순수함에 있다.

기록된 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5)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3-16)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5-10)

75.8 죄와 죄들

75.8.1 성적인 부도덕

[] 죄를 범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이 왜 큰 죄인가? 나는 죄에 민감하고 회개하는가?

[] 첫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 육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몸의 순결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고린도전서 5:1-
13)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찌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1:16)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앓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27-30)

75.8.2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

[] 나의 적의 계략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6-7)

75.8.3 의로운 사람이 되라

[] 내가 세상에 얽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세상의 것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1-6)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1-3)

76 빛 - "SOLUM GLORIA"

76.1 아가페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부드러운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좋은 친구처럼 모든 것을 세세히 논의하기를 원하신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 "내 마음을 다하여"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 (마태복음 22:37)

76.1.1 위로부터 오는 사랑은 최고의 선물이다.

[]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여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너의 마음을 거룩하고 순수하게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행동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랑은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행되어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사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며, 넘쳐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랑을 되찾는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는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다.

기록된 바: 이것이 또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이유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에 항상 힘쓰는 자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게는 조세를, 관세를 바칠 자에게는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는 존경을 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6-8)

76.1.2 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압도적인, 풍성한 참된 사랑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받는 이들에게 참된 사랑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얻게 된다. 넘치고 압도적이며 풍성한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하나님과 관계의 서열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37-39)

사랑을 행하는 자가 사랑을 말하는 자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주실 것이며,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캐주얼하게 말하거나, 은혜로 넘겨주거나, 스스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나오는 선물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자에서 행동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처럼 역사한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을 받으라. 하나님께 이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첫 걸음은 너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의 선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그분의 사랑이 위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믿으라. 그 사랑을 너의 삶에서 실천하고, 기록된 대로 율법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주어졌음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의 일을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76.2 위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은 영원하다

76.2.1 위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일시적인 위로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이것이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귀한 영적 선물인 이유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사랑은 순수하고 강력하며, 악의 세력에 맞서 견고히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롭고, 우리를 성령의 발걸음에 맞추어 걸도록 힘을 준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이다.

76.2.2 위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주고 감사하게 한다.

이 사랑은 어려움과 슬픔의 시기를 기쁨으로 헤쳐 나가게 하며,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한다.

76.2.3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백성을 존중하며, 말씀을 받는다.

[] 언제 성령이 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가?

기록된 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 죽기 전에 축복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그들에게 비치시며 바란 산에서 일어나시고 일만 성도 중에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신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주의 손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신명기 33:1-3)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76.2.4 참된 사랑은 항상 은혜롭고, 무례하지 않다.

[] 넘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내가 이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얻게 하리니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2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이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3-10)

76.2.5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거부한다.

[]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반대하고 권력을 남용할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는가?

기록된 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할지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신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1-10)

76.2.6 참된 사랑은 당신을 친구로 만든다.

[] 참된 사랑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 참된 친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9-17)

76.2.7 참된 사랑은 이웃을 도울 때 탐욕스럽지 않는다.

[]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리는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

기록된 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누가복음 10:30-35)

77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연습하라

감정적 사랑과 거짓 사랑을 믿지말라

77.1 스바냐 3 장

[]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리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왜 가장 극심한 징벌조차도 반역적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가?

[] 하나님께서 반역적인 백성에 대해 가지신
마음과 결단은 무엇인가?

[] 반역하는 지도자들에게 공의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반역하고 더러운 자,
압박하는 성읍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징계를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있는 그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들이요, 그의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들이라, 아침까지 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요, 그들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호와
는 그 가운데 계시며 의로우시니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아침마다 그의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결코 빠짐이

없으시거늘, 불의한 자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방을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황폐하며, 그들의 거리가
황량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그들의 성읍이 파괴되었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을지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모든 행위를
부패시켰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올 때까지
나의 뜻은 열방을 모아 그들을 불러
모아 나의 분노, 나의 모든 진노를 쏟는
것이니,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라.' 그때 내가 백성들에게
깨끗한 입술을 주어,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치하여
그를 섬기게 하리라.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의 경배자들,
곧 나의 흠어진 자들이 나의 제물을
가지고 오리라. 그 날에는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때 내가 네
가운데에서 네 교만을 기뻐하는 자들을
제하리니, 너는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네 가운데에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입에 속이는 혀가 없으며,

그들은 그들의 양 떼를 먹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시온의 딸아,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외치라! 예루살렘의 딸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하시고, 네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이여, 네 손을
느리게 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노래로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정한 절기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너희 가운데
있고, 그들의 수치는 너희에게 짐이
되었느니라.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히는 모든 자를 벌하며,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로
모든 땅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니, 곧 내가 너희를 모을 그 때에,
내가 너희를 세상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바냐 3 장)"

77.2 고린도전서 13 장

[] 큰 희생이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그런가?

[] 무엇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가?

[]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썩과리와 같은 소리가 나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 장 1-13 절)

77.3 요한복음 5 장

[] 안식일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다. 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영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나의 죄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구원에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가?

[] 이스라엘 백성이 38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38 년 동안 마비되었던 사람이 치유된 후 예수님을 다시 만날 기회를 얻었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해치려는 증거를 제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믿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 "정죄를 받는 부활"이 나에게 어떤 뜻인가?

기록된 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다섯 개의 행각이 있더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가 그리 하였는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여 유대인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음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의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5 장)

77.4 갈라디아서 3 장

[] 나를 미혹하는 사람이나 환경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는가?

[] 그들이 왜 나를 미혹하려 하는가?

[] 내가 미혹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의롭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유산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피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고난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이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세우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 장)

77.5 요한일서 3 장

[]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가?

[]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으며, 그것이 왜
중요한가?

[] 그리스도의 계명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할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났음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이라 함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형제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그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 장)

77.6 요한일서 4 장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 장 7-21)

77.7 로마서 13 장

[] 무엇이 사람들을 참을성 없게 만드는가?

[]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증거는 무엇인가?

[] 하나님의 창조, 조화, 아름다움, 평화를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 뒤에 누가 있는가?

기록된 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 장 8-14)

77.8 기타 실천 사항

[] 육체와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행동들은 무엇인가?

[]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오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 장 4-7)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가 하나님 위에 높여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지금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모르니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이가 있어 그가 가로막고 있는 동안은 계속되리라. (테살로니가후서 2 장 4-7)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 장 10-11)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 장 5-6)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 장 7-15)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위로부터 오는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공급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다.

기록된 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37-39)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넘치게 하라. 친절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라. 사랑으로 행한 일들은 영혼을
새롭게 한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도 확장했다. 바울의 사랑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뿌리를 둔
진정한 사랑이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어떻게
새기고 있는가?

[] 성공과 평화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가?

기록된 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5-13)

78.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라

78.1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의인의 길은 평탄하고 곧다. 오직 주께서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

[] 심판의 날 이전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보여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주여,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행하며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기억이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오며, 아침에 내 마음이 주를 바랐나이다. 주의 심판이 땅에 임할 때 세상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악인에게 은혜를 베풀지라도 그들이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며, 여호와와 위엄을 알아보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렸으나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백성을 향한 열정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요, 주의 대적을 위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이사야 26:8-11)

78.2 이와 같이 구하라

78.2.1 달란트의 비유

[]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또 천국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기 종들을 불러 그의 재산을 맡긴 것이라. 그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즉시 떠났더라.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숨겼더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더라.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 위에 세우리니, 네 주인의 기쁨에 들어오라' 하였더라.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말하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두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 위에 세우리니, 네 주인의 기쁨에 들어오라' 하였더라.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말하되, '주인이여,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나이다. 보소서,

여기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인은 대답하여 말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 돈을 맡긴 자들에게나 맡겼어야 할 것이요, 내가 와서 내 것을 이자로 받았으리라.'

그러므로 그 달란트를 그에게서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14-30)

78.2.2 인정

[]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32-33)

78.2.3 판단하지 말라

[] 하나님의 판단이 나와 다름을 깨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에게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하면서, 보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도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1-6)

78.2.4 겸손 / 행동으로

[] 겸손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교만이 오면 수치가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2)

지혜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겸손은 존귀 앞에 있는 것이니라. (잠언 15:33)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12)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4)

여호와와 법도를 행하는 너희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구하라.

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라. 혹시 너희가 여호와와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3 KRV)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가운데서도 주를 섬겼노라. (사도행전 20:19)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3)

78.2.5 마태복음 5장 실천

[] 겸손이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열도록 할 수 있는가?

[]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나의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 성령이 나의 마음을 살피면서 어떻게 회개하게 하는가?

[] 주를 따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획이나 한 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며,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옥리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두지 않도록 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을 행하게
하며, 버림받은 여자와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회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십 리를 동행하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11-48)

78.2.6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 사람들 에게서 높임을 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가?

기록된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1-11)

78.3 입술의 열매

78.3.1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선호에 따라
올바르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는가?

기록된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손의 행위로
자기에게 돌아가느니라.

미련한 자의 길은 자기 눈에 옳게
보이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에 분노를
드러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임을
행하느니라. 칼로 찌름 같은 자도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14-19)

78.3.2 입술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지 말라**

비판적이고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짓누른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헛된 말과 좌절시키는 말을 그치고,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라.

78.3.3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라

나의 입술을 기도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라. 찬양과 격려,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라.

78.3.4 온유함, 자신을 속이지 말라

[]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의 삶에서 본 것은 무엇이며, 기대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 나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록된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이 세상의 지혜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가 '미련한 자'가 되어야 참으로 지혜롭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18)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 없으며, 그들이 내 복음에 아무 것도 더하지 못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2:6)

78.4 단순함

78.4.1 자제력을 유지하라

기록된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력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8-11)

78.4.2 생각을 다스리라. 염려하지 말라

단순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다. 항상 단순한 것을 선택하라. 겸손하고 단순한 사람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오직 단순한 것만을 여기에 두라. 나의 기준은 결코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기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나의 그룹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기록된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78.4.3 나눔

좋고 부지런한 손을 가져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은 한 번에 큰 양을 받아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서 나누는 것임을 인식하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만큼 사랑과 능력을 공급하실 것이다. 단순히 구하고, 받고, 나누는 사이클을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나누어라. 마음을 다해 주고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되, 나의 기반을 하나님 안에 굳건히 두어, 자신의 자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에서 나오는 것을 확실히 하라. 구하고, 받고, 나누는 법을 배우라. 주고 나누는 데 있어 나의 경계를 배우라.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는 것과 봉사함에 지혜를 가지라. 악에 유혹되거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사역에서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음을 기억하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일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채우고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78.4.4 소유

[] 나의 믿음의 형제가 필요할 때 돕도록 무엇이 동기 부여하는가?

[]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가?

기록된바: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그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이나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사도행전 4:32-35)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단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그 앞에서 확신하리라.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그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17-24)

78.4.5 짐

[]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이 참된 사랑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바: 형제들아, 사람이 어떤 범죄에 걸렸으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살피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라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 사람은 자기 짐을 질 것이다. (갈라디아서 6:1-5)

78.4.6 지식

[] 내가 오늘 심는 선한 씨앗은 무엇이며, 내일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기록된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6-10)

78.4.7 받은 것을 거저 나누라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경험하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니, 욕심 없이 거저
나누고, 억지로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과 충성된 마음으로 나누라.

78.4.8 두 가지 방식으로 헌물을 나누라

누구든지 요구하는 자에게 나누라. 나의 행동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으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어디서든,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채울 것이다.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방문했을 때나,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을 방문하신
것처럼 필요를 가진 사람을 찾아 나누라.

상황이 발생할 때,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 생각하고 행동하라.

나눔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가? 하나님은 마른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바위나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없겠는가?
 하나님은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헛된 씨앗을 심는 것은 진지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지 않고
 공급을 요구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없으시겠는가? 질병과 고통 없는 세상을
 창조하실 수 없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성급하게 지름길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또한 나의 삶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

나눔의 원칙은 적절한 방식으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200 달러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딱 그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정확한 금액을 채울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30 배,
 60 배, 100 배의 결실을 설명하신 원칙과
 일치한다. 부적절한 경제 원칙을 적용하거나
 누군가의 순종을 강요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나의 관대함으로 인해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히려 주님의 지혜를
 분별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라.

헌물에 대한 태도와 그 품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어야 한다. "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헌물을 드리라. 그러면 당신의 헌물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사용될 것이다. 헌물을 의무감이 아닌 감사와 충성된 마음으로 드리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몫에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제공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며, 당신의 헌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 물질이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십일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않게 하며, 너희 포도나무가 제 때에 열매를 맺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을지라. 너희 땅이 아름답게 되리라. (말라기 3:10-12)

79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기록된 바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채워준다.

믿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하늘의 모든 축복은 믿음을 통해 온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다.

[]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기록된 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 나는 어떻게 자신의 약속에 충실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아이의 아버지가 곧 외치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였더라. (마가복음 9:24)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37:5)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생각이 바로 서리라. (잠언 16:3)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함이라. (로마서 4:18)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23)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0:23/ 11:1)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니 그가 건지실
것이요, 그가 기뻐하신다니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였도다. (시편
22:8)

79.1 자신을 살피고 믿음 안에 서라

내 안에 선한 행실의 흔적이 있는지 살피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나는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가? 만일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79.2 믿음의 기초 질문

- []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가?
- []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믿는가?
- []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음을 어떻게 아는가?
- []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 []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 []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원히 살아 계심을 어떻게 아는가?
- []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오시는가?

[]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다스리실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는가?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운영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믿음은 겨자씨 비유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잠언 31 장의 현숙한 여인으로부터 배우라.
마지막 세대의 태도와 행동은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문에서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반영해야 한다.
그녀의 성실한 노동은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으며, 그녀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낸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준비된 자, 믿고 일하는 자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지침은
악을 이기고 정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건도록 허락하셨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현실을 보고 의심하자 가라앉기 시작했다.
무엇이 변했는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단지 베드로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과도로 이동한 것뿐이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나의 믿음은 첫사랑에서 시작된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훈련받았고, 그 말씀은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깊고, 넓고, 거룩하고, 잘 준비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해야 한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번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지침을
기억하고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려고 하여 스스로를 판단하는
자리에 두지 마라.

79.3 맹인 바디매오에게서 믿음을 배우라

[] 무엇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인가? 자신 안에서의
두려움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압박인가?

[]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그러한 압박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바디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메시아가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그는 육체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분별하고
있었다. 그는 자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외쳤고, 결국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눈을 뜬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

기록된 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를 거느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그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외치기 시작하였더니,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46-52; 누가복음 18:35-43; 마태복음 20:29-34)

79.4 믿음의 역사

79.4.1 믿음과 일의 관계, 관점의 문제

[] 나는 언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자연 속에서 목격하는가?

[] 어디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가?

[] 무엇이 그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있는가?

[] 어떻게 파괴된 형상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그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1-4)

날마다, 밤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로 물
위에 도시를 세우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니라. 인생의 흐름은 낮은
물때와 높은 물때처럼 계절을 따라 움직인다.
폭풍은 믿음을 굳게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 정해진 때에 온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단을 세우되, 그
이름으로 부적절한 제단을 세우지 않도록
주의하라.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79.4.2 안식일과 십계명을 지켜라

기록된 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12)

예수님은 더 나은 세상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길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땅에서 부르고 가르쳐라. 진리, 곧 말씀은 살아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빌립을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광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그를 들어 올리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라. 돈을 벌고, 건강을 유지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하는 이유를 가르쳐라.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79.4.3 믿음의 원리

내가 계획한 일이 나의 자원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이다. 그런 성공은 나를 영화롭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계획을 나의 자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신 약속에 따라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힘과 자원을 제공하실 것이다. 믿음의 종으로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라.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79.4.4 믿음의 일

기록된 바: 할 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가복음 9:23)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베드로전서 4:1-5)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땅을 적시리라.
 (호세아 6:3)

79.4.5 믿음의 경주

[]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그 고백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증명하는가?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의 경주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달린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믿음은 모든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다.

기록된 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믿음의 선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다양한 사람들, 언어, 문화, 종교, 상황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는가?

믿음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실행함으로써 자라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는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부활할 것이라는 진리를 이해하라.

기록된 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이에게
 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린도전
 서 12:1-11)

성령으로부터 받은 선물

능력
 다락방담대함
 지혜
 지식
 예언
 능력
 치유
 방언 통역
 방언
 믿음
 사랑

79.4.6 믿음의 사람의 태도로

- a) 나를 자녀로 입양하셨음을 감사하라.
- b)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음을 감사하라.
- c)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삼으셨음을 감사하라.
- d)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라.
- e) 하나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매일 생각하라.
- f)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 g) 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 h)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 i) 네 소유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첫 열매로 주를 섬기라.
- j)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라.

79.4.7 매일의 고백, 용사의 고백

- a) 나는 부족하지만 주는 완전하시며, 주에게는 결핍이 없다.
- b) 나는 무능하지만 주는 전능하시다.
- c) 나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고 능력이 있으시다.
- d) 나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만, 주는 어디에나 계신다.
- e) 나는 모든 것이 제한적이지만, 주의 지식에는 제한이 없고 주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80 믿음의 증명

80.1 시련을 통해

- [] 왜 시련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가?
- [] 살아 있는 소망과 죽은 소망의 차이는 무엇인가?
- [] 시련을 통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3-9)

80.2 걱정하지 말라

[] 왜 걱정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행동인가?

[]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걱정은 불안을 초대하고, 이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다.

[] 그것을 올바른 길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 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으며, 약속의 땅을 즐기지 못했는가?

[]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물질과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편리함을 위한 도구일 뿐, 해결책이 아니다.

기록된 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7)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앉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25-34)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5-6)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80.3 백부장

[]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이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런가?

[] 살아 있는 믿음을 어떻게 얻어, 그 믿음이 나를 인도하게 하는가?

[] “나는 진리이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성령이 어떻게, 언제 오셨는가? 성령의 오심과 기쁨 부음의 은사와는 어떻게 다른가?

기록된 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와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5-13)

80.4 고넬료

[] 어떻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목자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들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구시썸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사도행전
10:1-8)

80.5 믿음의 실천, 예

(히브리서 11 장)

믿음: 오직 믿음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 약속된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 삶 속에서 살아나게 된다.

미래의 그림은 믿음을 통해 확실해진다: 보이지 않고 바라만 보았던 비전을 오직 믿음을 통해 나의 삶 속에서 현실로 만든다.

우주를 이해함: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 오직 믿음을 통해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그는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다.

시간을 넘어 말함: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

휴거 준비된 삶을 살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았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보상하심을 확신함: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가족을 구함: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고 경외심으로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하였다. 그 믿음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가정을 세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앞으로 받을 유업의 땅으로 나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고, 이삭과 야곱도 함께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건축하신 견고한 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죽은 자와 같던 자로부터 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라도 불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여기셨기에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한 사람, 곧 죽은 자와 같았던 자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한 자손이 나왔다.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임을 고백함: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죽었으며, 그들이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임을 인정하였다.

순례자의 여정: 그들은 이런 말을 함으로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들이 떠나온 땅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더 나은, 곧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준비하셨다.

불가능을 넘어서 이성을 초월하여 죽은 자가 부활할 것임을 깨달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다. 약속을 받은 그가 자기 외아들을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네 자손이 이어질 것이다'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를 다시 받았다.

복이 흐름: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미래에 대해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 각자에게 축복하고, 지팡이를 의지한 채 경배하였다.

죽음을 넘어 미래를 바라봄: 믿음으로 요셉은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날 것을 말하였으며, 자신의 뼈를 가져가라고 지시하였다.

두려움을 넘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난 후 석 달 동안 숨졌다. 그들은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보았으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영원한 가치를 택하고 일시적 영광을 거절함: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을 때,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다.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치욕받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다. 이는 그가 장차 받을 보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진노로부터 지킴을 받음: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을 지키고 피를 뿌렸으니, 이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해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바다를 발로 건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일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여리고를 정복함: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일곱 날 동안 행진한 후 그 성이 무너지고 정복하였다.

오는 진노로부터 생명을 구함: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였기 때문에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세상의 공격을 이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행하며, 약속된 것을 얻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맹렬함을 끄고,

칼날을 피하였으며,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며, 이방 군대를 물리쳤다.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남을 받았다.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았으나 구속을 거절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혔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지고,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궁핍과 박해와 학대를 받았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의 구멍에서 떠돌아다녔다.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셨기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온전해지기 전에는 온전해질 수 없도록 하신 것이다.

81 그리스도 안에서 의 소망

81.1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을 위한 일

[] 이삭이 살던 땅에 기근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이 그것을 초래했는가?

[]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근 중에도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는 농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그의 백성의 증거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러하신가?

[] 이삭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경험한 증거는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이삭을 악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셨으며,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기록된 바: 아브라함 때의 첫 번째 기근 외에 또 기근이 있었으므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가기 위해 그탈로 갔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에 이삭이
그탈에 거주하였더니 (창세기 26:1-24)

81.2 부활

[] 내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가? 나의 노력은 주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가?

기록된 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람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빌립보서
3:1-11)

81.3 우리는 정복자 이상임

[]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은 사랑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39)

81.4 나의 정체성과 자질을 증명하라

81.4.1 하나님의 자녀

[] 예수님처럼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방법인 이유는 무엇인가?

[] 나의 형제는 누구이며, 그가 어디에 있는가?

기록된 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요한일서 2:1-14)

81.4.2 아브라함

[]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기간이 얼마동안이었나?

기록된 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칠십오 세였더라 (창세기 12:4-6)

81.4.3 이스라엘 백성

[]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희석시키는가? 이렇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 요한계시록이 이 주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예언을 변경하지 말라고
주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4:1-14)

81.5 지혜와 함께 걷기

81.5.1 위로부터 오는 지혜

[]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지혜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7-18)

81.5.2 지혜가 흘러가는 곳

지혜는 겸손한 상한 마음으로 흐르고,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한 영혼에게는
흐르지 않는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라.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81.5.3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 나는 어떻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가?

기록된 바: 무리가 병어리가 말하고, 장애인 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됨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5:31)

하나님의 지혜는 낮고 겸손한 마음을 통해 흐른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생각해 보라. 그들은 무엇에 의해 동기부여되었는가?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녀는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상과 천국에서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것으로 채우실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81.5.4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를 분별하라

[]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기록된 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더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옷에 낡은 옷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옷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 더 찢어지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가 다 터지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마가복음 2:18-22 KRV)

81.6 세상이 아닌 곳에서

7 개의 지혜의 기둥

[] 위로부터 온 것은 세상에서 온 것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 나에게 주어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너희 중에 지혜 있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13-16)

기록된 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13-14)

81.7 신중함

[]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함이니라 (잠언 8:12-16)

82 성령과 함께 걷기 (노트 26.14 review)

[] 성령 안에서 걷겠는가?

[]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 옛 본성의 욕망과 욕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는가?

기록된 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16-26)

82.1 노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8-9)

82.2 가르침 안에 계속하라

[] 가르침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순수한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으로다 은혜와
금홍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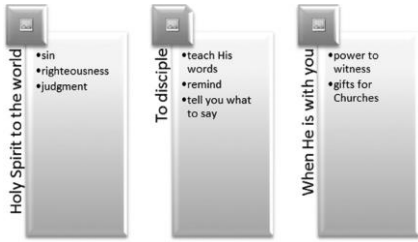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지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이서
1:1-12)

82.3 위로부터 오는 능력

[] 나를 주께서 찾으시는 자로 만드는 표시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역대하
16:9a)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

82.4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 교만한 것,
- 무례한 것,
- 자랑하는 것,
- 자기만을 구하는 것

82.5 사랑은

- 친절한 것,
- 인내하는 것,
- 보호하는 것,

-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 것,
- 쉽게 화내지 않는 것,
- 악을 기뻐하지 않는 것

83 헌신

하늘의 축복의 문은 열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문은 주께서 받으신 헌신을 통해서 열린다. 일을 마치고 주님께 헌신했다고 말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것은 문을 여는 받으신 헌신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 드리는 헌신 위에서 시작된다. 올바른 헌신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내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하라. 나의 헌신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합당하게 받아들여진 헌신은 나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신호가 된다.

83.1 헌신이란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중에서 주님께 헌신의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나 자신과 함께 살아 있는 제물로 드려라. 헌신은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 나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올바른 길로 지향해 가도록 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1-2)

여호와와 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역대하
16:9)

83.2 왜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는가?

[]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심을 의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주께서 택함을 받은 양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기록된 바: 여호와와 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언제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10-12)

83.3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가?

나의 몸, 시간, 재능, 소유물, 마음을 사랑과 감사로 헌신한다. 이 모든 것이 한 열매를 맺고, 하나의 행동 안에서, 하나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

[]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헌신은 어떤 것인가?

[] 모든 헌물에 포함되도록 명령받은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19)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슬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15-23)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마태복음 25:14)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헌신은 네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 과부의 두 랍돈, 루디아의 환대, 향유 옥합,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양식. 이 헌물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헌신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온전한 헌신만을 받으시며, 그 외의 것은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다. 아브라함의 헌신을 생각해 보라. 그는 외아들 이삭을 희생하려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을 받았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말고, 차선책으로 대체하지 말라. 변명하거나 남의 의견에 의존하지도 말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바칠 때, 나의 사명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헌신은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나의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하며, 그 헌신이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83.4 헌신의 질

첫 번째로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두 번째 기회에는 그 축복이 줄어들고, 세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마치 적절한 물 공급이 농사에 큰 도움을 주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자원 역시 필요한 때에 사용되어야 하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훈련된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받은 자원들을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치지만, 그것은 잘못된 헌신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올바른 헌신의 본질을 배워야 한다. 올바른 헌신은 받은 씨앗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다. 원금을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얻은 이익을 나누는 것이 바른 헌신이다. 먼저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가정을 위한 튼튼한 재정적 기초를 쌓은 후, 얻은 수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이러한 올바른 나눔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으며, 30 배, 60 배, 100 배의 풍성한 소득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물질을 쌓아두고 그것이 자신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이 주신 축복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헌물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오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석한다.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눈멀고 귀멀게 만든다. 따라서 모든 헌물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드려진 헌물인지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 우리가 마음에 남는 사람들을 기억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헌신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도움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역을 위한 자금 지원은 씨앗 자금과 같으며, 투자자는 은행처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83.5 헌신의 종류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헌신하여 자신이 소유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여 봉사의 삶을 살았다.

스데반은 자신을 희생하며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헌신했다.

용서받은 여인은 향유 옥합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적절한 때에 사랑을 드렸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을 온전히 번제물로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아들이나 첫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소유를 선언하신 것들도
헌신의 한 부분이다.

다비다의 섬기는 손과 사랑의 마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추구하는 헌신을 보여준다.

옥합을 깨뜨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유산을 통한 헌신도 또한 중요한 헌신이다.

a) 인정받은 삶의 방식: 고넬료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이웃을 돕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태도를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가 맞는
표현이다. 예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b)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헌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명 헌신.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떡.

c)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d) 나의 마음이 원하는 만큼 일부를 드림: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헌물로 드렸다.

초대 신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헌신했다.

e) 작지만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림:

과부의 두 렵돈.

다섯 개의 물고기와 두 개의 떡.

83.6 잘못된 헌신

[] 나의 이익을 헌신이나 봉사에 섞는 것은 무엇인가?

[]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모두 드러내어 심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사빠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행전 5:1-5)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고 상한 심령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이 나의 헌신은 순수하고 진실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84 해야 할 일: 기도

[] 무엇이 주님의 도구로서 깨끗한 그릇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디모데후서 2:20-21)

84.1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합당한 장소에서, 적절한 옷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과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라.

84.2 기도가 넘치도록 기도하라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 솔로몬의 예언을 읽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믿으며, 매일 세 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 성경을 읽은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 다니엘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어떻게 믿는가?

[]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곧 소리질러 가로되,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29)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런 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욕망과 힘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어라. 겸손하고, 종이 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올바른 자세를 배우라.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니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 8:2-5)

84.3 기도에서 전사의 자세를 가지라

마음과 뜻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특히 어려운 시기에 주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로 나의 영혼을 지키고, 나의 부르심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라. 주의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셀라) (시편 77:1-3)

84.4 기도는 성령의 숨결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길 간구하라.

84.5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 주께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능력을 보내시길 구하며 어떻게 기도하는가?

[] 주변의 문제들에 대해 수동적인 방관자는 누구인가?

[] 어둠의 권세에 맞서 담대함과 주의 팔 아래 보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록된 바: 석방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 '주님이여,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종이요 우리 조상인 다윗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주님의 기쁨 부으신 자에게 대적하려 한다' 하셨나이다.' 이 도시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이제 주님, 저희의 위협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고 난 후에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리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사도행전 4:23-31)

84.6 약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록된 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7-12)

84.7 기뻐하며 기도하라

[] 불안이 생길 때, 나의 걱정을 어떻게 기도로 이기는가?

기록된 바: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떨어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4-7)

이와 같이 성경에서 기록된 바를 따르며,
기도로서 나의 삶을 주의 뜻과 일치시키라.

84.8 주의 기도 - 기도의 요약

[] 나의 기도는 어떻게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되는가?

[] 나의 기도 응답이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주의 뜻과 일치하는가?

기록된 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5-15)

84.9 나의 기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장막을 넓혀라

[]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 내가 주와 관계에서 느끼는 한계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찌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찌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찌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54:1-3)

84.10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위해 기도하라

[] 주의 나라와 의를 우선시하는 기도 패턴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밋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마가복음 1:35-39)

84.11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이유

[]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 수 있는가?

기록된 바: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1-2)

84.12 주의 영광을 위한 침묵

[] 왜 주께서 침묵하시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는가?

주의 침묵도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주의 영광이 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85 기도의 예시와 교훈

85.1 히스기야의 기도

[]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은
주앞에서의 상한 마음과 겸손한 영인가,
아니면 선행인가?

[] 주의 은혜와 치유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무엇인가?

[] 주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이에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주님,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명을 15 년 더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게 증거할 표적은
이것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내려간 해 그림자를 십도를 뒤로
물리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뒤로
물러갔더라.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은 후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가 내 생명의 중년을 지나 죽음의 문으로 나아가서 나의 남은 해들을 빼앗기리라.” 내가 말하되 “나는 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산 자의 땅에서 주님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나는 세상에 거하는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내 집은 목자의 장막같이 나를 떠나가며, 직조공이 베를 걷어치운 것 같이 내 생명을 거두셨으며, 주님께서 나를 날이 저물도록 마치 사자처럼 나의 뼈들을 부수셨나이다.” 내가 참으로 기다리다가 아침에 이르렀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마치셨나이다.

나는 제비처럼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신음하였으며, 나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약해졌나이다. 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행하셨나이다. 내가 모든 해 동안 겸손히 주님 앞에서 행하리니, 이는 내 영혼의 고통 때문이로소이다. 주님이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살고, 내 영도 그들 가운데서 생명을 얻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고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내가 이런 큰 고통을 받은 것이 나의 유익이었나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뒤로 던지셨나이다. 무덤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죽음은 주님의 신실함을 찬양하지

못하나이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은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지 못하나이다.
산 자, 곧 나 같이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함을 알리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우리의 생애 동안
현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무화과 반죽을
취하여 종기에 붙이면 나으리라.”
히스기야가 이르되 “내가 주님의 전에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38:1-22)

85.2 히스기야를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인가?

[] 주께서 지적하신 실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무엇인가?

[]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궁궐의 모든
것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인가?

[] 히스기야는 그가 받은 치유로 주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가?

기록된 바: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므로다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왔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들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와 말씀이
종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 39:1-8)

85.3 바디매오, 맹인으로부터 배워라

기도의 예시: 맹인 바디매오

[]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창조주를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없을
만큼 절박한가?

[] 그 절박함의 필요를 위해 주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기록된 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겼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좃으니라 (마가복음 10:46-52)

85.4 금식과 기도

85.4.1 잘못된 금식

[]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세상의 열매와
어떻게 다른가?

기록된 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내게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를 즐거워하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높은 데서 들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곧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갈대같이 머리를 숙이고 굽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이것을 너희가 금식이라 하겠느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날이라 하겠느냐? (이사야 58:1-5)

85.4.2 올바른 금식

[] "믿는 자들의 빛"은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행동을 빛으로 보신다,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기록된 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흉악한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양식을 굶주린 자와 함께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았을 때에 그를 입히며,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히 나타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리라. 네가 압제의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버리고, 네가
 주린 자에게 네 마음을 다하여 주며,
 괴로워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강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자손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많은 대대로 무너진
 기초를 일으킬 것이며, 너를 가리켜
 '무너진 대로를 수리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거할 수 있게 복구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6-12)

85.5 나의 기도를 점검하라

85.5.1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록된 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1)

85.5.2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기도

1. 야고보서 1:8 - 두 마음
2. 이기적인 욕심
3. 회개 없는 기도
4. 복수심
5.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마음

85.5.3 응답받는 기도

1. 생산적인 기도 - 주님의 능력이 응답하는 기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에베소서 4:16)

2. 진실하고 믿음이 있는 기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찌로다 (시편 145:18-21)

3. 항상 기도하는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8)

4.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7)

5.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21-24)

85.5.4 세속적인 기도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멀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9-
14)

결으로 보이기엔 겸손한 기도. 바리새인 -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

관습적, 체계적 - 의무 보고

85.5.5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

기도 후에 절망하지 말라

열심히 기도하라

깨어있는 기도

85.5.6 응답받은 기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기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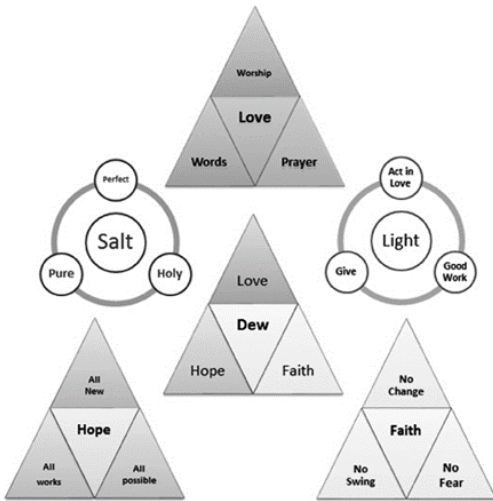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4-5)

기록된 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7-12)

올바른 기도

축복과 저주를 분별할 수 있는 기도, 정돈된 삶. "사랑, 소망, 믿음" 위에 세워진 이슬이 영원하고 오염되지 않으며 순결한 상태로 거한다.



A. 소금

완전함: 나는 어린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겨졌다.

거룩함: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 분리되었다.

순결함: 항상 첫사랑 안에 거하므로.

B. 빛

주를 사랑하기에 주의 일을 기쁘게 행한다.
주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

선한 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나눔: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와 희생

C. 사랑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실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하며

즐기고, 방향을 제시하며, 가르침과 교정을 위한 것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기도하라.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는 이 세상의 신들을, 즉 바알을 파괴하였다.

D.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방향을 받는다. 능력과 공급, 보호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받으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음.

동요하지 않음, 나는 그분과 함께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음.

E. 소망

모든 것이 새로워짐: 새 하늘과 새 땅, 약속된 미래.

모든 것이 가능함: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함.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함.

모든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

86 매일의 선택과 지침

86.1 나의 길 인도: 율법과 예언

86.1.1 십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계명은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상이나 벌을 받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 무엇이 나를 죄와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 주의 계명을 따를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가?

[] 십계명을 어떻게 충실히 지킬 수 있는가?

기록된 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2-17)

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행할 이 모든
 일로 너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나
 주의 능력을 보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할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4:10-28)

86.1.2 새로운 계명 (요한복음 14 장)

[]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의
 약속과 새로운 계명은 어떤 관계인가?

[] 주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기록된 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 장)

86.1.3 십계명 이해

우리의 법이 십계명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주님께서 불드신 그것을 내가 불들기
위해'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축복은 심판의
정반대이다.

[]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फल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찌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립보서 3:12-16)

86.2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교제, 정상적인 신앙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얻은 것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나의 마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막달라마리아처럼 '라보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때, 나의 영이 열리며 부활하신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

86.3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방향 설정

좌: 죄 - 육신의 정욕, 정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우: 주를 위한 열정 -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지키며 나아감

[]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 무엇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별하는가?

[]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성공하는 듯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1-9)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는 정직하여도 그
끝은 사망이라. (잠언 14:12)

주께서는 너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 계획은 평안과 희망을
주려 함이라. (예레미야 29:11)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23)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 1:32-33)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5)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36)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4)

87 왜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신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87.1 네가 사는 때를 분별하라

[] 행동의 시기를 결정하는 이는 누구인가?

[] 어떻게 시기를 분별하는가?

기록된 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1-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모압 지방에서 듣고 이에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여
(룻기 1:6)

87.2 지금은 어떤 때인가?

복된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열매를 맺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축복의 시기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때를 보라: 언제 어디서 축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의 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축복의 비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87.3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된다: 심고 거두는 원칙.

[] 의심 속에서 심으면서 결과를 기대하는가?

[] 적게 심으면서 큰 수확을 기대하는가?

[] 네 땅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 네 겨자씨는 무엇인가?

[] 보호 계획이 있는가?

[] 네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87.4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 이것이 실재인가, 거짓인가?

[] 이것이 사랑으로 인한 것인가, 미움으로 인한 것인가?

[] 이것이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 이것이 투자인가, 도박인가?

[] 이것이 순종의 길인가, 불순종의 길인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천국의 곡식을 모으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그 결과를 맞았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내 말에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신중하라.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따르며 내 인도를 구하고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회개하라!

87.5 네 기초를 점검하라

실패나 재난을 맞을 때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우리 일이 실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인식하라. 대신, 마음 속의 악으로 인한 분노, 불평을 회개하라.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것은 적의 영향력에 취약하게 된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단지 일시적인 위안이거나 잘못된 시작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는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세워라. 말씀이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할 것이다. 은을 찾는 것처럼, 또는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말씀에서 조언을 구하라. '주를 두려워함'에 숨겨진 축복의 길을 발견하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일은 말씀이 권능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단지 듣기만 하는 자인가? 우리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가?

87.6 잠언 31 장의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일했는지 기억하라

기록된 바: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을 때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삼가 생각하라. 만일 네가 탐욕이 있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그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날아가리라. (잠언 23:1-5)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29)

87.7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에 따라 일하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하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성품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는 것과 같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날개위에 업고 가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백성을 품으신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능력과 생명으로 축복하시고자 하신다. 생명은 성령 안에 있으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성령과 예수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의 영이 네 안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 네가 가진 생명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 영원한 생명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32:11-12)

진실로 그의 구원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는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85:9)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37:27)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9)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3)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2)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15)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16)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아니니, 그가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27)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령을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위엄의 목격자라. (베드로후서 1:16)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12-13)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계시록 19:13)

87.8 하나님의 말씀위에 네 일을 세우라, 감정이나 의지나 계획에 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지 않은 것은 모두 헛되며 결국 뽀핍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일과 업적은 악의 지배 아래 놓이기 쉽다.

[] "이방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 놓인 것을 아노라. (요한일서 5:19)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나를 위하여 축적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마치 동물에게 충분한 물을 주고 종에게 좋은 음식을 주어 건강과 힘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원을 잘 관리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경험이나 세상의 계획 위에 세우지 말라.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파멸될 것이다.

파괴는 네가 신뢰하던 사람에게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동료에게서 올 수 있다. 불의와 불공정으로 성공을 쌓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 몰락하게 된다.

[] 네가 심고 있는 씨앗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은 무엇인가?

[] 우리가 들은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 왜 하나님은 실천을 강조하셨는가?

[]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록된 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모든 식물은 뽑힐 것이니라.
(마태복음 15:13)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음이었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집이 무너져 크게 무너졌느니라.
(마태복음 7:24-27)

완전한 자의 행위는 가난한 자보다 낫고, 입이 폐역한 자보다 나으니라.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것이 좋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그 길을 그르치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생명을 망치는데도,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향하여 분노하느니라. (잠언 19:1-3)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9-11)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20)

불의로 그의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의 윗방을 지으며, 자기의 동족을 무상으로 일하게 하여, 그들의 품삷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레미야 22:13)

87.9 깨어서 시기를 분별하라

때가 악하며 죄로 가득하다! 조심하고 주의 깊으며 인내하라. 마귀는 서두르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하여 네 일을 망치게 하려고 유혹한다. 행동할 올바른 때를 분별하라. 준비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주의하고 신중하며 분별하라. 마치 물 위에 고층 건물을 세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처럼 네 일을 계획하며 명상하라. 설계도를 점검하고 재확인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따라 모든 경우를 신중하게 계획하라.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험하라. 네 일에 신중하라. 기초와 계획이 강하지 않으면 네 건물은 무너지리라. 파손되거나 손상된 건물을 수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롭게 세우라.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리라.

기록된 바: 악인은 넘어지고 더 이상 없으나, 의인의 집은 서리라. 사람은 그의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나, 마음이 패역한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잠언 12:7-8)

하나님은 '나는 네 동기를 재고 있으며 네 행동을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 복을 구하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두신 것을 이루기를 원하라. 기도로 나아가라. 그것이 응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라. 세상의 경험에 기초하여 건축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 그 결과는 다툼, 소송, 파괴, 스캔들, 살인, 분리, 실패, 그리고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시편 1 장은 두 길과 그들의 운명을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너의 일은 헛된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한 죄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가 탐욕스러운 마음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가? 탐욕은 불안, 좌절, 그리고 해로움을 가져온다. 반면 축복의 열매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만나가 광야의 축복이며,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방문하시고 축복하셨다. (룻기 1:6)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방문하고 축복하시는지를 발견하라. 그분의 때를 배워라, 그것이 축복을 받는 열쇠이다.

87.10 구하고 두드리라

네 일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구하고 두드리라. 네 사업을 겨자씨처럼 상상하고, 그 성장 단계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 덮어라.

네 사업이 네 마음의 상상안에 자라도록 하라. 끊임없이 네 비전을 그려라,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상상력을 사용하라.

베드로가 깊은 물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곳은 수확이 불가능해 보였다.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네 그물을 던지고 세상의 방식을 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네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기적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 네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축복의 경계를 지키라, 그리고 너의 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라.

모든 것을 올바른 구조와 시스템으로 세워라. 모든 일을 성령의 지시에 기초한 정의로 다루어라. 네게 약속된 것을 추구하라 —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축복하라.

87.11 예언이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가르침을 준다. 축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편안하게 살거나 개인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 뜰에서와 들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 말, 행위를 판단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신다.

예언이 개인의 안녕과 좋은 사업, 번영만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예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 세우기 위한 방향과 인도를 제공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께 구체적인 질문을 구하면 성령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부 사항을 간과하고, 주님의 때와 지시를 놓치며, 주요 사건에만 집중하여 우상과 사탄의 덫에 빠진다. 많은 이들이 큰 일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무시한다.

깨어라! 네 자녀들, 배우자, 또는 친구들이 큰 일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나님,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든 행사와 계획에 초대하라. 하나님은 작은 세부 사항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사탄은 거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인내를 요하는 일들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개별적으로, 올바른 때에 일하신다.

모든 예언은 그 때와 계절이 있음을 인식하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예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주어졌다.

기록된 바: 그가 나가신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자 안에서 영광을 주시리니 곧
영광을 주시리라. 자녀들아,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1-35)

88 축복 또는 저주

88.1 받아들여짐

88.1.1 받아들여진 이유

기록된 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 (시편 68:18-19)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일년 삼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찌니라 (신명기 16:16-17)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 1 서 1:1-5)

세 절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의 예물

절기: 역사적 의미, 그리스도의 사람들

유월절 - 출애굽 (구원)

무교절 (보리 수확)

부활절 (부활)

칠칠절-밀 수확

오순절 - 율법 성령 강림 (교회)

부림절, 나팔절 (로쉬 하샤나),

속죄일 (욤 키푸르)

초막절 (첫 열매) 초막절 - 40 년 광야 생활
(성막)

감사절 (유대인+ 교회)

[]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물을 요구하실까?

[] 이 세상의 신들은 왜 자신이 창조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 어떤 예물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받으신 예물은 축복의 문을 열고
위로부터 믿음의 줄기를 따라 나에게 흐른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잠언 30:4)

받아들여진 예물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기록된 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아직도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으니, '그가 더 이상 찾아지지 않았음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그가 들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졌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4-6)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받아들여지기 위해 준비하는 걸음을 관찰하신다. 물질의 크기가 아닌, 나의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

88.1.2 성령을 따르라

축복의 법칙

[] 어떤 소식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가?

[] 선악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기록된 바: 장로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내가 진리에 충실하다는 소식을 전해 주니 내가 심히 기뻐하였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 행하는 것, 비록 그들이 낯선 자들이라도, 신실하도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네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진송하라.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영접해야 할지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기 위함이라. (요한삼서 1:1-8)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을 받아들이실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나의 기도의 잔이 넘친다.

88.1.3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 마음에 새겨진 법이 무엇이며, 그것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마음의 평안을 잃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내 율법을 마음에 두고 있는 너희, 의를 아는 자들아, 나를 들으라.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욕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과 같이

나방에게 먹히고 양털처럼 벌레에게 먹히리라. 그러나 내 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에 이르리라. (이사야 51:7-8)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라. 너와 네 자손이 살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30:1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예레미야 21:8)

88.2 저주받음

88.2.1 사람의 해석에 오염된 것, 받아들여지지 않음

[]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 예배에서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만일 내가 아버지라면 나의 공경할 곳이 어디 있느냐? 만일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할 곳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면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면에서 주를 더럽혔나이까?' 라고 하도다. '주의 상은 멸시할 것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눈먼 것을 희생으로 드릴 때 그것이 악이 아니냐?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악이 아니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혹은 너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손에서 행해졌으니, 그가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누가라도 문을 닫고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할 자가 있겠느냐?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예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향이 드려지며 깨끗한 예물이 드려지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더럽히며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열매와 그 음식은 멸시할 것이 된다' 하도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아,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하며 그것을 코웃음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도둑질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니, 이와 같이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는도다!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그의 떼에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을 주께 드리는 자니라. 나는 큰 왕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이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이니라. (말라기 1:6-14)

믿음은 희석을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진심이 없는 의식을 싫어하신다. 우리의 예배는 공허한 의식으로 가득한가?

88.2.2 우상을 의지하여 응답을 구함

[] 세상이 넘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운명은 무엇인가?

[] 왜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는가?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낮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8:11-22)

88.3 정복하고 누림: 증거

88.3.1 재정 원칙

[] 받아들여질 만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 마음에 있는 저주가 어떻게 나의 가정에 저주를 불러오며, 왜 내집을 파괴하려는 자에게 힘을 실어주는가?

[]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기록된 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 내가 나의 보배로운 소유를 만드는 날에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그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말라기 3:17)

사람이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였도다.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그것은 십일조와 헌물에서이다. 너희는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나라가 나를 도둑질하였음이라.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리라.' (말라기 3:8-12)

88.3.2 나는 맹인이었으나 이제 보나이다

[] 'Amazing Grace' 찬송가의 배경 이야기와 저자 존 뉴턴에 대해 알아보라.

[] 영적으로 맹인인 자는 누구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 치유받은 맹인의 담대함과 지혜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 최근에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네가 따르는 스승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다른 이들이 칭하는가?

기록된 바: 그들이 예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왔더라.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셨고, 나는 씻었고, 이제 나는 보나이다.' 하더라.

어떤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 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이라." 하였고, 다른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서로 분쟁하더라. 결국 그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가 네 눈을 열어준 것에 대해 너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시니라." 하더라. (요한복음 9:13-34)

88.4 풍성한 생활 / 잠언 31 장

88.4.1 생명의 가치

[]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는 실천은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때와 나쁜 때 모두 축복하셨는가?

기록된 바: 내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할꼬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찌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찌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병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찌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찌니라 (잠언 31:2-9)

88.4.2 덕 있는 삶

믿음직한 삶

기록된 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꺾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잠언
31:10-12)

88.4.3 낭비할 시간이 없음

기록된 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 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잠언 31:13-15)

88.4.4 집중함

기록된 바: 밭을 간파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잠언
31:16-19)

88.4.5 자연스럽고 품위 있게 나눔

기록된 바: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잠언
31:20-22)

88.4.6 영예가 따름

기록된 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옷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뒀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23-31)

89 정복하고 책임지기: 계명

89.1 승리와 성공

[] 나의 전쟁을 승리하도록 한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을 통해 전쟁을 치를 것이요, 많은 조언자들이 있으면 안전이 있다. (잠언 24:5-6)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에 속한 자들에게 하라. (갈라디아서 6:7-10)

첫 사랑과 열정을 잃지 말라. 순종과 인내로 열매를 맺으며, 승리와 성공을 인정하고 주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으라. 그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승리와 성공의 출처를 감지하라. 이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라. 우리의 성공은 승리로부터 온다. 우리는 여호수아 처럼 모든 도전에서 주의 계명을 신중히 지키며 승리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89.2 내면의 전쟁

89.2.1 주의 임재로 인한 승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거하시며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함께하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를 나의 일상생활에 초대하라.

[] 내안에 천국의 길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장차 말하기를 돌우고
돌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면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찌어다 평강이 있을찌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14-21)

89.2.2 방어

생각으로 회개하고, 입으로 회개하며, 행동으로 회개하라. 모든 상황에 주님을 초대하라.

89.2.3 공격

담대하고 염려하지 말라. 변하는 감정이 아닌 변치않는 말씀을 믿으라.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라.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상기하라.

89.2.4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

[] 조건없이 어린아이처럼 내 안에 있는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힘과 축복을 초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6-28)

89.2.5 여리고 성벽 - 나 자신

[] 감각적 욕망을 저항하고 극복한 성품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 감각적 욕망과 분노의 압도적인 힘을
어떻게 대처하며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기록된 바: 이러한 규례들은 자의적
경배와 겸손과 육체를 괴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있는 듯 보이나,
감각적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느니라. (골로새서 2:23)

89.2.6 여리고 성벽은 나 자신이다.

성령 안에서 올바른 기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 나는 주의 말씀을 위한
어떤 마음발인가? 주는 과거에 거하지 않으시며,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걱정하지 말라. 주는 오늘 여기
계신다. 현재에 주를 위해 살라.

주만이 이 세상을 이기며 중력과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전에
옳았다고 여겼던 것도 계속 변한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개선을
추구한다. 인간이 만든 것은 특정 상황에서만
유효하며, 사람이 자연과 역사를 마음대로
창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절대적일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를
형성하여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신 주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을 믿고 나의 삶을 그 말씀에
의지하라. 그의 뜻을 발견하고, 그의 때와 그의
말씀을 이해했으며, 양심이 깨끗하다면, 믿음과
행동을 결합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의 제단에
올려라. 응답은 올 것이다, 인내하며 기다리라.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 응답은 새벽같이 다가올
것이다. 주는 축복을 형성하시며 평화를

가져오시고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나를 지탱해 주신다.

나의 기도와 주의 능력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다. 현재의 문제는 이를 이해하는 이들에게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기회가 된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이것을 성장의 비료로 사용하라. 주께 받은 축복만 간직하라. 지금 숨 쉬는 것 하나하나가 그의 축복이며 주어진 기회임을 알아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가난, 고통, 상실, 부정적인 생각, 쓰라림, 미움, 원망, 실패, 실망, 우울함과 절망—을 모두 회개로 물어버려라.

89.2.7 어려운 시기를 다루는 방법

주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제자들은 보호받았듯이, 우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라. 심각한 문제가 닥쳤을 때 모두가 외치지만,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으로 주께 나와야 한다. 그것이 차이점이다.

[] 어떻게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나나의 적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기록된 바: 주님은 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며 악한 자가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리라. (시편 5:4)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3-48 KRV)

89.3 세상 속의 전투

89.3.1 주님께 부르짖으며

[] 주의 약속된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15)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할
것이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15)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10)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 그 땅을 복원하고 황폐한 유산을 되찾게 하리라.” (이사야 49:8)

내가 너희에게 줄 말과 지혜를 주리니, 너희 모든 대적이 이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21:15)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13)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14)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16)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18)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3)

89.3.2 회개하며 주님을 초대하기

회개: 완전한 회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열쇠이다. (하나님의 말씀, 회개, 믿음, 말씀과 기도로 가져오기)

89.4 패배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전투에서 패배한다. 믿지 않으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오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하라.

89.5 응답되지 않는 기도

우리가 듣지 않음:

[]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핍박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그들은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주 만군의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만군의 주의 큰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부르짖으나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7:12-13)

칼아 깨어라, 내 목자와 내 벗 된 자를 치라." 만군의 주께서 이르시되, "목자를 치라, 양들이 흠여질 것이며, 내가 작은 자들을 내 손으로 돌이키리라. 온 땅에서 3 분의 2 는 멸망하고 죽으리라. 그러나 3 분의 1 은 남을 것이라. 내가 그 3 분의 1 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은을 정련하듯이 정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말하리라. '이들은 내 백성이라' 하겠고, 각 사람은 말하리라.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 (스가랴 13:7-9)

89.6 피 묻은 손

[] 죄의 용서를 위해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너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15)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9)

그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12)

89.7 안식일을 존중하지 않음

[] 성도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기록된 바: 안식일에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짐을 나르지 아니하여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아 그 요새들을 사를 것이라. 꺼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7:27)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시편 68:18-21)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니라. 그러면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에스겔 20:20)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31:13)

90 지상의 주님 나라

90.1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90.1.1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가치 있는 노력의 특성은 무엇인가?

[]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5:42-47)

90.1.2 악령의 함정

[] “성육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성육신의 여정이 “플랜 B” 없는 일방통행인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1-6)

90.1.3 악령의 가르침

기록된 바: 아이들아,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고 거짓말이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앎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한일서 2:18-26)

90.1.4 사탄, 떨어진 별

[] 사람들은 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가?

[]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첫 사랑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는가?

[] 사탄의 목표는 무엇인가?

[]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여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피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찢려
돌구덩이에 빠진 주검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찌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에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끓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제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14:9-23)

90.2 전도

90.2.1 주를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라

[] 사탄의 함정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그의 목표는 무엇인가?

[]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6-7)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가고 내 정의가 만민의 빛이 될 것임이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아가며,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라. 섬들이 나를 양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사야 51:4-6)

90.2.2 죽음 아니면 은혜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14-21)

90.2.3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간헐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23-25)

90.2.4 오직 그 안에서 구원

[]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 나나의 결정과 행동이 주의 임재와 영광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기록된 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말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는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너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험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
여세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1-22)

90.2.5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

[] 사람들은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우리과 같은 육신이 되었는가?

기록된 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10-13)

90.2.6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

[]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보다 더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찌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37-50)

90.2.7 아름다운 발

[] 꺾박받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찌어다 너의 파숫군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찌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사야 52:7-10)

90.2.8 하나님의 초대

[] “값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

기록된 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1-7)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찌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16-21 KRV)

90.2.9 빌립이 환관에게 인도됨

[] 성령께서 가야 할 장소로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듣는가?

[] 에티오피아 환관이 읽고 이해하려고 했던
구절은 무엇이며, 나는 그 구절을 이해하는가?

기록된 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 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이뇨 자기를 가리킵이뇨 타인을
 가리킵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8:26-
 40)

90.2.10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

[] 예수님은 왜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알리셨는가?

기록된 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으나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시는지 묻는 이가 없더라. (요한복음 4:27-42)

90.2.11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증

[]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는 누구이며 그들의 운명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찌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1-12)

91 선교

단기 및 장기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와 "주의 나라가 오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의 열정이어야 한다.

기록된 바: 모세가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런 다음 그는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6-8)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지지 않았다. (히브리서 9:17-18)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사람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 (잠언 11:30)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다. 선교의 성공은 주를 따를 준비가 된 제자들을 얼마나 잘 양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매일의 양식이다. 성령을 통해 회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광야를 사용하여 그의 백성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셨다. 우리는 모두 광야 훈련을 거쳐야 하며,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하라. 하나님은 마치 모래와 우주를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으신다..

시간은 귀하다. 매일 기도로 시작하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나 우발적인 일이란 없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며,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반영 할 수있는 기회다.

어제를 사는자도 내일을 사는자도 없다. 시간은 한 번뿐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회를, 주께 은혜를 받을 순간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헌신을 위한 두 번째 기회를 항상 주시지 않는다. 첫 번째 기회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두 번째 헌신 기회도 잃을 위험이 있다.

아침 이슬이 소에게 흡수되면 신선한 우유가 되고, 독사가 흡수하면 독이 된다. 이처럼 5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인생의 품질을 결정할 것이다.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라; 나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명상하고 계획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명예로운 삶을 세워라. 주는 나를 보상하실 것이며, 그 열매는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마치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모든 만남에 임하라.

창조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셨고, 베들레헴 땅에 한 사람을 발견하여 기뻐하셨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임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런 사람이 되라.

91.1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

[]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일들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9-11)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7)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예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그 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아모스 9:11-15)

91.2 선교사

선교사인가 인도적 지원자인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셨는가? 선교사의 첫 번째
 자격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인이 사용
 하도록 준비하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라.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
 좋은 제자를 훈련하라. 단순히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를 목표로 삼아라.
 거지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다. 나의 하는 일이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주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피라.

91.3 죄 많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 어두운 마음이 감사하거나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 마음의 죄된 욕망이 이끄는 공동체의
 결과는 무엇인가? 누가 그 배후에 있는가?

[] 지성의 탈을 쓰고 부끄러운 욕망과 본성의
 역행을 따라가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 타락한 마음에 이끌리는 공동체의 이미지는 어떤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경건과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명백함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헛되어지며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에 내어 버려 더러움에 빠져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으니 그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시니라.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그들의 여인들도 자연 사용을 거스려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자연 그대로 여자를 사용하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음행, 악행,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18-32)

죄가 어떻게 사회의 더 큰 부패를 초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장려하는지를 보라. 우리는 날마다 그 증거를 목도하고 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계속해서 타락의 순환을 반복할 것이다.

당신은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가?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 축복과 저주의 길을 선포하였다. 당신은 축복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가?

선교사는 제자 양성자이지 단순히 동정심에 의한 구제자가 아니다.

기록된 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 마음의 뜻을 알아내시려 함이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주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그 아들을 징계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뒤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시는 땅은 물이 흐르는 좋은 땅이요 골짜기와 언덕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는 땅이며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감람나무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며, 부족함 없이 빵을 먹는 땅이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들들이 철이요 산에서 구리로 팔 수 있는 땅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을 인하여 그분을 찬송할지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할 때에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분은 너희를 불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두려운 광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사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그러나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나니 이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나라들처럼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명기 8:1-20)

[]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나의 광야 시험은 무엇인가?

[] 광야 순례 동안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

[] 광야 학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하나님께서 나의 열매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광야에 있는 선교사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하지만, 대신 종종 하나님을 대신하여 "도움"의 탈을 쓴 다른 사람들을 발견한다.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선교사는 추가 교훈을 위해 광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선교사"와 "인도적 지원"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91.4 MMCC(Multipurpose Micro Community Center)와 선교 도우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종종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선교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공급에 신뢰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는 선교 사업을 돕기 위해 지원자들을 인도하신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구분하고 혼란을 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신다. 선교 사업과 선교 기반의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 다 하나님의 개입에 의존하며 그의 기적을 목격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상당히 다르다.

사업에서는 초기 투자금이 나의 기반을 형성하며, 이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관리하도록 나에게 맡겨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주의 깊게 듣고,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라.

91.5 그들이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으리라

[]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복음을 전하거나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왜 특별한 특권인가?

기록된 바: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음을 증언하노니, 그러나 그 열심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같이 묘사하되,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리라" 하였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위에서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 또는 "누가 깊은 곳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이랴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동일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묻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들었느니라: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또 내가 묻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키하게 하며, 지각 없는 민족으로 너희를 격노케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히 말하되,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고,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였으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되,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내밀어 거역하고 완악한 백성을 대하였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1-21)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17-20)

91.6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께 구하라

[]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 가련하게 방황하고, 학대받고, 이용당하고, 혼란에 빠진 양들은 누구인가?

기록된 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35-38)

91.7 믿는 자들의 기도

기록된 바: 베드로와 요한이 농이매 그들이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로소이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하셨나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러 이 성에 모였더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행하려고 하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23-31)

91.8 믿는 자들이 소유를 나누다

기록된 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요셉이 있으니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라 하니라.

그가 밭이 있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4:32-37)

기록된 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에게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33-36)

말씀 위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성령을 따르라.

92 마음을 향하여: 교훈

92.1 시편 139 편: 주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하나님의 창조에서 찾는 아름답고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나이다. 내 혀의 말이 아직 내게 있기도 전에, 여호와여, 주께서 온전히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 위에 손을 얹으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여 나에게는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정녕 어둠이 나를 덮을 것이요’ 하여도,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되리이다. 어둠이

주에게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밝으니, 어둠과 빛이 주 앞에서는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짜임 받은 때에, 내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많더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싫어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 편)

92.2 축복의 문, 올바른 길, 선택: 잠언 3 장

92.2.1 장수와 평안

[] 어떻게 발을 헛디딤과 두려움에서 지킬 수 있는가?

기록된 바: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장수와 평안을 더하리라. (잠언 3:1-2)

내 아들이,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며, 지혜와 명철을 지켜라.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은혜가 되리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안전하게 행하겠고,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의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와 함께 의지할 이시니,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21-26)

92.2.2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

[] 은총 후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한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3-4)

92.2.3 올바른 방향

[] 올바른 길의 지표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92.2.4 건강한 몸

기록된 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건강이 되어 네 뼈에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7-8)

92.2.5 재정적 축복

기록된 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9-10)

92.2.6 사랑으로 책망함

기록된 바: 내 아들이여,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3:11-12)

92.2.7 성취된 삶

[] 지혜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기록된 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를 잡는 자에게 생명 나무라, 그를 굳게 잡는 자는 복되도다. (잠언 3:13-18)

92.2.8 축복이 너를 통해 흐름

[]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선한 일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네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 이웃에게 ‘가서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고 네게 있을 때에 주라.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와 더불어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 (잠언 3:27-30)

92.3 바로잡기: 판단, 배우기, 회개

회개하고 돌아오라

[]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듣지 못하는가? 나는 듣는가?

[] 회개는 나와 하나님께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내가 그들을 위해 눈을 주목하여 복을 내리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세우고 혈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24:6)

혹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26: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니, 내가 너희를 사로잡힌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14)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 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레미야 3:12-14)

내가 내 처소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리라." (호세아 5:15)

92.3.1 마음 속 악과 싸워라!

전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속에 성찰하라. 어떤 이들은
성적인 죄에 얽매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헌물을 남용하며 자신의 욕망을
따른다. 그들이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과멸이 아닌 회복을 원하신다. 나의 성공을 위해 희생한 많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희생한 것을 되새기라. 잘못했다면 돌아보고 실수를 찾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타인을 틀렸다고 여기며 권력을 추구하거나 닫힌 마음을 가지면 죄의 길을 걷는 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은 자아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신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나아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살피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의 뜻과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고, 승리를 주며, 그의 이름을 나의 열매를 통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만약 실패, 가난, 병, 고난의 굴레에 갇혀 있다면 정성을 담아 받으실만한 더 나은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의를 회개하라.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의 아이디어는 갇혀 있을 것이다. 수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지만 실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그의 축복을 구하라.

92.3.2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

회개하고 새롭게 성장하라. 오래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 나의 방법, 사고방식, 교리, 안락지대, 성공을 위한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름과 명예 추구. 지금이 심판

앞에 서기 전에 마음을 준비할 때이다. 오래된 땅을 온전히 갈아엎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에 대한 의심이나 혼란을 제거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라.

[] 하늘의 지혜의 열매가 세상의 열매와 어떻게 다른가?

기록된 바: 너희 자신을 위해 의를 심고, 공흠을 거두며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가 오사의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12)

여호와께서 젖먹이에게도 젖을 주며, 사막의 타조와 같이 모질지 않으시리라. (예레미야 애가 4:3)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양식으로 떡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씨를 공급하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9:10)

92.4 악과 원수를 분별하라

주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것이 참된지 거짓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다. 주변을 보라, 열매가 보인다면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 열매는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 주께서 위로부터 주신 많은 열매일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하여 훈련을 통해 열매를 맺으라.

아들을 지식으로 징계하라.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도, 불완전한 지식이거나, 문화적 열심에 기인하거나, 양심의 자유를 얻기위해 바쳐진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만약 나에게 들을 귀나 볼 눈이 없다면,

잘못된 종교적 지식이 오히려 나를 파괴할 것이다.

[] 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기록된 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때리시느니라. (히브리서 12:6)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새길지어다. (신명기 8:5)

여호와여, 주께서 징계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치신다 하셨나이다. (시편 94:12)

여호와여, 주의 판단이 옳으니, 주께서
성실함으로 나를 고난당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19:75)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 3:11)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3:12)

사람이 자기 죄로 벌을 받을 때에 어찌
원망하겠느냐? (예레미야 애가 3:3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19)

93 올바른 예배, 새롭게 되다, 회복과 축복을 받다

93.1 두 갈래의 길

삶의 두 가지 길. 나의 길은 어느 쪽인가?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의 설계에 따라 살다.

세상에 속한 자: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살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며 세상과 구별된 자이다. 그들이 의의 옷을 입고 상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고, 주의 신부로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며, 오는 왕국에서 권위를 부여받는다.

93.2 하나님의 은총을 받다

93.2.1 창조주의 은총을 받는 사람

은총을 받은 자녀는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고, 기도의 열매를 볼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한다. 경건한 성품의 열매를 키운다.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고 말한 것을 따르며, 말한 대로 행한다. 희생의 제물을 주님께 드린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영적 자녀를 양육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마태복음 5,6,7 을 행한다

93.2.2 주홍빛 같은 죄가 눈처럼 희어지다

[] 하나님이 나의 죄를 눈처럼 희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이유와 그 방법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18-20)

93.3 정해진 절기

레위기 23

주의 절기들 (노트 88.1.1 참고)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호와와 절기 곧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와 절기들이니라.
(레위기 23:1-2)

93.3.1 안식일

기록된 바: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여호와와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3)

93.3.2 안식년의 법

기록된 바: 너는 육 년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여 버려 두어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며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옛새 동안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을
삼가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3:10-13)

93.3.3 세 가지 절기

조화와 회복의 창조 원리: 사람을 위한 안식일,
땅을 위한 안식년, 종의 해방을 위한 안식년.
일곱 번째 안식년 후 희년이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다.

[]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최소한 세 번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명령하셨을까?

[] 왜 천사들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까?

기록된 바: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빔 월 그 정한 때에 일곱 날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또 첫 열매의 절기와 연말에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때의 수장절을 지키라.
매년 세 번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 앞에
나올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누룩 있는 것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희생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14-19)

93.3.4 유월절과 무교병

[]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 오늘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기록된 바: 이것이 여호와와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거룩한 모임이라.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와의 **유월절**이요 그 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를 위한 **무교절**이라 너희는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거룩한 성회가 될지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칠 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칠 일에도 거룩한 성회가 될지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3:4-8)

93.3.5 초실절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여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게 할 것이요 안식일 이튿날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 것이며 그 흔들는 날에 일

년 된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이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는 포도주 힌 사분의 일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나 볶은 곡식이나 생이삭을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에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3:9-14)

93.3.6 칠칠절

기록된 바: 너희는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어 칠 안식일을 마치고 오십일을 개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 두 덩이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흔들지니 이는 첫 열매요 누룩을 넣어 구울지니라.

너희는 흠 없는 일 년 된 수양 일곱과 수송아지 하나와 숫양 둘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리되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것이며.

또 숫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고 일 년 된 어린 숫양 둘을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첫 열매의 떡과 함께 흔들어 여호와께 드리되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 이는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요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 날에 너희는 너희에게 거룩한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3:15-22)

93.3.7 나팔절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쉼 안식일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성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레위기 23:23-25)

93.3.8 속죄일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곱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가 될지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하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에게 칠 안식일이 될지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며 그 달 아홉째 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너희 안식을 지킬지니라. (레위기 23:26-32)

93.3.9 장막절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칠 일 동안**의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에는 성회가 될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칠 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성회가 될지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며 이는 엄숙한 집회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와 절기들이니 여호와께 화제와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그 날에 맞게 드릴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과 너희의 모든 서원제와 너희의 모든 자원제니라.

또한 너희가 그 땅의 소산을 거두는 칠 월 열다섯 날에는 칠 일 동안 여호와와 절기를 지킬 것이요 첫째 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 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희는 칠 일 동안 여호와 앞에 이 절기를 지킬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칠 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칠 일 동안 초막에 거할지니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가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시니라. (레위기 23:33-44)

93.4 출애굽기 23

천사와 약속

[]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서 언제 천사를 보내시나?

[] 왜 전쟁 전에 종교 의식이 행해졌을까?

[]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나?

[] 왜 하나님은 적들을 조금씩 몰아내셨을까?

[] 풍성한 수확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모든 지혜, 지식, 권력, 부를 가졌던 솔로몬 왕이 이방 신 숭배에 빠진 이유와 그로부터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너를 길에서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거역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천사가 네 앞서 가서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끊으리라.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 말며 도리어 그들을 아주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땅에 낙태하는 자나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공포를 네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르는
모든 백성을 요란케 하고 네 모든
대적이 너를 보고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것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일 년 안에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많아 너희를
해할까 함이라.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니라. 내가 네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출애굽기 23:20-33)

93.5 민수기 28

93.5.1 일상적인 제사

[]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왜 하나님은 많은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 참된 사랑은 왜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나의 예물 곧 나의 화제의 식물인 나의 화제를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된 흠 없는 수양들을 00 매일 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며 고운 가루에바 십분의 일을 기름에 섞어 소제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라.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포도주 한 사분의 일이니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전제로 부을 것이며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며 아침의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지니라. (민수기 28:1-8)

93.5.2 안식일의 제사

기록된 바: 안식일에는 일 년 된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이로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안식일의 번제니라. (민수기 28:9-10)

93.5.3 초하루의 제사

기록된 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니 수송아지 하나에 삼십분의 삼 에바요 수양 하나에 이십분의 이 에바요 어린 양 일곱에는 십분의 일을 각각 드릴 것이며. 또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월 초하루의 제사니라. (민수기 28:11-15)

93.5.4 유월절의 제사

기록된 바: 첫째 달 열나흘날은 여호와와 유월절이요 이 달 열다섯날은 절기니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흙 없는 어린 양 일곱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니 수송아지 하나에 삼십분의 삼 에바요 수양 하나에 이십분의 이 에바요 어린 양 일곱에는 십분의 일을 각각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28:16-25)

93.5.5 칠칠절의 제사

기록된 바: 칠칠절에는 너희가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니 수송아지 하나에 삼십분의 삼 에바요 수양 하나에 이십분의 이 에바요 어린 양 일곱에는 십분의 일을 각각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흙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 (민수기 28:26-31)

94 안식일

94.1 안식일의 이유

- []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 [] 어떻게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가?
- []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가?
- [] 주께서 “받으셨다”는 표시는 무엇인가?
- [] 주께서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록된 바: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13)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시며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반역하는 자들로부터도 선물을 받으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며, 주께서 거기 거하시려 하시나이다. (시편 68:18)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0:2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29-31)

94.2 안식일은 거룩하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날에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3)

94.3 정한 절기

[]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호와와 절기는 너희가 성회를 공포할 여호와와 정한 절기들이니라.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지킬 여호와와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1-3)

기록된 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들짐승들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사막에 물을, 광야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18-28)

94.4 잘못된 예배

[] 깨어진 가정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 가장 소중한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웃을 때
어떻게 견디는가?

[] 그의 은총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개선해야 하는가?

기록된 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어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도다.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1:10)

94.5 예배의 규정

예배 장소

[] 올바른 예배를 위한 지침은 무엇인가?

[] 오늘날 그 기준은 무엇인가?

[] 예배가 받아들여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우리의 예배에 어떤 가증스러운 의식들이
있는가?

기록된 바: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지킬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그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지켜
행할 것이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던 모든
곳, 곧 높은 산 위에든지 작은 산

위에든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다
헐어버리라. (신명기 12:1-32)

94.6 마음의 성전

[]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가?

[] 복음이 너에게 축복이며 걸림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35)

94.7 순수함을 지켜라

예수는 십자가에서도 섞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다. 순결한 피로 교회를 사셨다. 교회는
순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자 기도의
집이다.

기록된 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94.7.1 천국의 열쇠가 있다

[] 예수가 기도하신 하나 됨을 잃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 교회에 분열이 생기면 누가 고통받는가?

기록된 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19)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찌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찌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데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12-27)

94.7.2 순결, 오염되지 않음

[] 악한병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은 무엇인가?

[] 예수님과 세상 천국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가?

[] 예수님이 혼합된 포도주를 거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하는가?

기록된 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고, 거기서 며칠
 계시니라.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다.

예수님은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상을
 엮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권한을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셨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 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겠느냐?"라고 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 하신 것은 그분의 몸을 의미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말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12-25)

자신의 방식과 취향에 맞춘 예배는 주님의 기쁨을 채우지 않는다. 예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성령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실천되며, 회개가 드러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예배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와 쓸개 섞인 것을 거부하심으로 순결함을 지키셨다.

기록된 바: "그들이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를 만나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더라.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으나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겹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며 조롱하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비웃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비웃으며 "그가 남은 구원했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믿겠다"고 했다.
두 강도도 같은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했다. (마태복음 27:32-44)

95 제단

95.1 흙으로 만든 제단

기록된 바: "내게 흙으로 만든 제단을 만들어라. 그 위에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양과 염소, 소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가서 복을 주겠다." (출애굽기 20:24)

95.2 기도의 제단

[] 하나님께서 흙으로 된 제단을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기도란 무엇인가?

[] 성전이나 교회가 왜 기도의 집이라 불리는가?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이사야 56:4-7)

95.3 노아

[]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지개의 표징을 얻게 한 노아의 제단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기록된 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다시는 내가 행한 것처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20-22)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벧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창세기 12:7-9)

95.4 이삭

[] 이삭은 어떻게 다툼에서 승리했는가?

기록된 바: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리니, 네

자손을 많이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언약을 맺고,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맹세를 하고 평화롭게 헤어졌다. (창세기 26:23-35)

95.5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 제단을 만들 때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찌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찌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8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찌니라 (신명기
27:1-8)

95.6 제사장

95.6.1 예배 전에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라

[] 왜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행하기 전에
성결하게 해야 하는가?

[] 성결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오늘날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찌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29:42-45)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4)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한 제사장을 세우셨다.
(히브리서 7:28)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9-10)

95.6.2 질서 있게 예배를

[]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증거는 무엇인가?

[]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나시길 원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찌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찌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찌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1:1-16)

95.6.3 성찬식을 지키라

[] 성찬식의 의미와 이유는?

[] 성찬을 집례하고 받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손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23-34)

95.7 받으실 만한 헌물

[] 헌물의 목적은 무엇인가?

[] 받으실 만한 헌물의 특성과 축복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히브리서 11:4-6)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훼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찌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시편 15:1-5)

95.7.1 받으시는 이유

기록된 바: 주께서 높이 올라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셨나이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68:18)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누구며, 바람을
손안에 모으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가?
땅의 모든 끝을 세우신 이는 누구인가?
그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가? (잠언 30:4)

받으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고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하시며, 기뻐하시고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뜻이다.

95.7.2 헌물의 조건

[] 헌물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시편 15 편에 나오는 제사장의 특성은
무엇이며, 예배를 주관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기록된 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11:4-6)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빠지지 않게 하 모든 헌물에 소금을 드려라. (레위기 2:13)

96 예배 캠프

96.1 예배자의 성품과 태도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있다

- 1) 준비하고 성결된 제사장이 되라.
- 2) 준비하고 성결된 예배 인도자가 되라.
- 3) 준비하고 성결된 예배 장소를 마련하라.
- 4) 헌신된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 5) 기도의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 6)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기록된 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제사와 예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모스 5:25)

지금까지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리라.' (이사야 57:15)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상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18)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가까이 오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3:57)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1-24)

96.2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심

[]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선택과 성결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것을 네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22)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를 만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9:1)

주의 이름이 가깝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75:1)

96.3 기도와 성결로 준비된 장소

이스라엘 백성이 축제를 준비할 때 몇 달 동안
옷, 제물, 태도, 연설,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준비했던 것을
상상하라. 나의 마음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함 같이 준비하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없다. 하나님은 죄를 슬퍼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찾으신다.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악의
요새를 무너뜨리라.

96.4 찬양을 통한 예배의 능력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찬양과 찬송으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라. 찬양을 통해 회개와 기쁨을
경험하라.

96.4.1 준비된 찬양

받으실 예배를 드리며,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예배 중에 회개로 이끄는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라.

이해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리라. 알지 못하는
말을 가져오지 말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신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방해하는 영들을
쫓아내라. 거룩한 찬양과 예배로 성령을
맞이하라.

생각과 이성으로 성령의 일을 가로막지 말라.
박수와 손을 드는 것은 영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예언이 없을 때 열 번까지 찬양하라.

[] 나의 찬양 목록을 정리하라.

[] 영적인 감각으로 볼 수 있는 찬양을
생각하라.

[] 나의 찬양을 위한 말씀을 찾으라.

[] 찬양이 왜 경배의 형태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말과 초대가 포함되는지
깨달으라.

[] 찬양을 드리는 자격을 갖춘 깨끗한 그릇이
되라.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느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3)

96.4.2 예배에 일곱 나팔 사용

찬양과 찬송은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 제대로
하라.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처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5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 이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찌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찌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민수기 10:1-10)

96.5 예물에 대한 축복과 기도

예물을 드리기 전에 다툼이 없도록 하라. 주께서 주신 것에서 구별하여 합당한 제물을 드리라. 예물이 100% 주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축복하라.

96.6 하나님의 말씀 선포

96.6.1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고 불이 타려면 불꽃이 필요하듯, 작은 불꽃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너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예배자는 기쁜 자원자다. 깨끗한 그릇으로서의 적절하고 의로운 옷을 온전히 입으라.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여 마음을 갈아엎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함께하신다. 타협하지 마라. 내가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다. 나는 약한 질그릇이지만 순종이 나를 강하게 한다. 안수하고 기도하여 기름부음을 받고 영적인

은사를 받으라. 무례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취하지 마라.

96.6.2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자신의 말이나 설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모든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약속을 재확인하고, 믿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며, 소망을 말씀에서 찾게 될 것이다.

너의 말이나 오락,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색시킬 수 있다. 필요한 설명을 해 주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와 올바른 간증으로 끝맺으라.

96.6.3 말씀 선포의 초점

- a) 순종이 축복을 가져온다.
 - b) 순종이 잃어버린 성읍을 회복시킨다.
 - c) 순종이 영광을 가져온다.
 - d)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다.
 - e) 순종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
- 가르침과 설교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라. 항상 순종의 결과로 마무리하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 기울이라.

96.6.4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가야 주의 영이 일하신다.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먼저 들으신다. 의미를 설명할 때는 5 분 내로 시간을 제한하라. 단순함이 강력하다.

- a)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악으로부터 보호한다.
- b)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악을 이긴다.
- c)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 d)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회개와 부흥을 가져온다.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주 안에 있고, 그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준비하고 선포하라. 그를 부르라.

졸업 후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대학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인간이 쓴 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름부음 받은 자를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와 순종을 통해 세워졌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때에 그의 전략을 주신다. 신학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명은 제공하지만 능력은 제공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가르치는 능력 있는 신학이 필요하다.

96.6.5 회개와 부흥의 기회

하늘의 회개는 우리의 것과 다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 주의 방식에 따라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주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라. 받아들여진 예배는 회개와 거듭난, 하나님의 임재를 따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따라서 예배 중에 회개와 거듭남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손을 들어 기도하고 선포하라. 그가 받으실 찬양을 드리라. 찬양은 증폭되어 거리로 흘러나갈 것이다. 축복과 저주가 올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네가 아니라. 기도와 격려를 위해 영적 은사를 사용하라.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라.

[]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

기록된 바: 그들이 들어가서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곳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매와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하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13-14)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 2:1-2)

여호와와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시편 145:18)

96.7 수련회 일정

예배를 너의 일정에 맞추지 마라.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를 것이니, 예배 후에 일정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너의 예배 시간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의 임재가 있을때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 만남은 며칠 동안 연장될 수도 있다.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부은 말씀을 전하라. 회개가 성령의 임재와 기적을 가져온다.

97 헌신의 제사는 하나님을 존경함이다

97.1 예배하기

예배자는 합당한 희생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마음, 태도, 준비 과정을 보신다. 올바른 태도로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기록된 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희생 제물과 예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느냐?
(아모스 5:25)

97.2 예물의 원칙을 알라

기반의 확고한 확립을 위해 기도하라. 기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때 희생을 준비할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나누고 분배하도록 구별하여 채널이 되게 하라.

인정을 받기 위해 자랑하거나 소음을 내지 말고 은밀히 드리라. 소유자나 주인이 아닌 청지기 종으로 행동하라. 너의 호함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너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청지기는 주인의 음성에 순종할 것이다. 생명, 시간, 재능, 공간, 사물, 나눔, 분배는 무릎 꿇고 드린 기도를 따라야 한다. 존귀가 네게 오면 시련이 네 문을 두드릴 수도 있고, 그날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 네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 주님이 예루살렘에 세 번째 성전을 재건할 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기록된 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화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97.3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과 감사로 드리는 제물

예배 시간에 수표를 쓰거나 신용카드로 현금하는 것이 진심으로 준비된 것인가? 두렵고 경이로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오라.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제사를 드리라. "광야에서 지시하신 대로 황소, 염소 또는 양을 드리라." 예물과 희생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회개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신다.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를 하라.

97.4 번제 (수컷)

[] 하나님이 아모스 5:25 에서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 첫 두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찌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찌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찌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뜯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찌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 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꿇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멍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 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1-17)

97.5 소제 (지극히 거룩함)

[] 왜 소제는 불로 드리는 제물 중 가장 거룩한가?

[] "소제"를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여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의 기름과 모든 유향을 한 움큼 가져다가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소제니라.

남은 소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레위기 2:1-16)

97.6 화목제 (수컷 또는 암컷)

[] 희생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기름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찌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찌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찌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찌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찌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와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3:1-17)

97.7 속죄제 (수컷)

[] 피를 단 앞에서 일곱 번 뿌린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속죄제의 고기를 만진 자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와 금령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열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찌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찌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 같이 할것ियो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 금령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यो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찌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박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 같이 사를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와 금령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찌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
같이 단 위에 불사를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와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4:1-35)

97.8 속건제 (암컷)

[] 속건제는 왜 고백과 함께 드려야 하는가?

[]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예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 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찌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찌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와 화제물
위에 불사를찌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찌니라 (레위기
5:1-13)

97.9 보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 (숫양)

[] 왜 무심코 저지른 실수나 조상의 죄도
여전히 너의 길을 방해하는가?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릴지니, 곧 너의 값으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가져올 것이며, 그가 성물에 대하여 범한 그 죄에 대하여 보상하되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14-19 KRV)

97.10 번제

[]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필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시는가?

[] 희생은 왜 회개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사랑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는 번제의 규례니라. 번제물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단 위에 두고 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6:8-13)

97.11 소제

[] 이 소제가 모든 만지는 자를 성결하게 하는 영구한 규례인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찌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찌니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레위기 6:14-18)

97.12 만지는 자는 모두 거룩해야 한다

[]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지극히 귀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예바 십분 일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यो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째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찌니
불사를찌니라 (레위기 6:19-30)

98 보통의 그리스도 제자

이것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1) []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기록된 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2) [] 항상 주를 내 앞에 둔다.

기록된 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8)

3) []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37)

4) [] 주의 음성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한다.

기록된 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신명기 28:1-2)

5) []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기록된 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3)

- 6) [] 성령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기록된 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

- 7) [] 주를 따르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

기록된 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6-27)

- 8) []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며 주님 앞에서 흠
없이 지킨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14)

9) [] 복과 저주를 분별할 줄 안다.

기록된 바: 온 율법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14-26)

10) [] 선한 것을 선택한다.

기록된 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에 걸리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피 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1-10)

11) []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른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34-38)

12) [] 매일 내 십자가를 진다.

기록된 바: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23)

13) []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다.

기록된 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37-39)

14) []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기록된 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30-31)

15) []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한다.

기록된 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1)

16) [] 항상 기뻐한다.

기록된 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6)

17) [] 쉬지 않고 기도한다.

기록된 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7)

18) [] 모든 일에 감사한다.

기록된 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19) [] 시간을 아껴 사용한다.

기록된 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16)

21) [] 모든 물질적 소유를 포기한다.

기록된 바: 무릇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26; 33)

